발간관리번호 2021-003

2021 청소년활동 사례집

비상기자단 청소년포상제

| 전라북도 |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비상기자단

청소년포상제

2021 청소년활동 사례집

비상기자단&
청소년포상제

CONTENTS

인사말 04

전라북도청소년비상기자단

전라북도청소년비상기자단 소개 09

전라북도청소년비상기자단 기사&지도자 칼럼 10

협력기관 68

더 많은 기사는? 69

청소년 포상제

청소년포상제란? 72

청소년포상제 운영기관 83

청소년포상제 참여 후기 85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2021년은 어떤 시간으로 기억되나요?

친구의 말간 얼굴 보다 마스크 위 눈동자에 더 익숙해진 시간,
배달원의 플라스틱 음식 포장이 더 편안해진 시간,
온라인 클래스와 비대면 활동이 당연시 되는 시간 등 다양하겠지요.

저에게 올 한해는 마스크와 온라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청소년의 열정이 커다란 직소퍼즐로 완성된 시간입니다. 바쁜 학교생활 중 귀한 시간을 내어 작성한 청소년활동 기사와 사회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칼럼으로 들었을 때는 뭉클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내고, 글을 쓰는 정성을 들였을까를 아니까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경험한 포상제 활동은 또 얼마나 멋진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고 훈련하는 경험,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배우는 시간, 자연 속에서 내 몸의 감각을 깨우는 탐험활동의 시간까지 모두 찬란하게 빛나는 경험이지요.

청소년들에게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힘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과 실수를 통해 우리는 성장

합니다.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내가 무엇에 이끌리는지를 질문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실수도 하겠지요. 실수하고 회고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시간을 우리는 '배움'이라고 하고, 그 여정에서 예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한 뼘 자란 '성장의 느낌'입니다.

올 한해 비상기자단과 포상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이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는 청소년들에게, 자녀의 주도적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강조하고 싶은 부모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겁니다. 비상기자단과 포상활동을 잘 마무리한 청소년들에게는 박수와 칭찬을 보냅니다. 누구보다 청소년들이 활동 속에서 성장하도록 애써주신 포상담당관 선생님들과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동료들에게도 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 의 숙

전라북도청소년비상기자단

PART 1

전라북도청소년비상기자단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전라북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취재기사와 더불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청소년의 시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전라북도 대표 청소년기자단입니다.

직접 쓴 기사를 블로그, SNS, 지역 신문에 매월 기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리 박람회, 캠페인, 정책제안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자단 발자취

2014

전라북도청소년비상기자단 시작 **1기**

한옥마을 기획 취재기사 기고 **2기**

2015

2016

3기 전주 사람의 거리 체험부스 운영

4기 전라북도청소년동아리박람회 참여

2017

2018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체험부스 운영 **5기**

6기 전라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 참여, 홍보영상 제작

2019

2020

새전북신문·청소년자치연구소 협약 **7기**

신문 지면 기고, 온라인 활동 및 캠페인 **8기**

2021

기자단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월~3월 기자단 모집 → 3월 심사 및 선정 → 3월~4월 위촉식&워크숍 → 매월 1회 정기회의 → 매월 1건 이상 기사작성 및 배포 → 12월 평가회의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기사 아이템 선정 → 취재 기획서 작성 → 담당 지도자 승인 → 취재 및 기사 작성 → 기사 제출 → 검토 및 보완 → 신문, 블로그 및 온라인 배포

전라북도청소년비상기자단 8기를 소개합니다

김정빈 | 이리남중학교

김혜빈 | 정읍여자고등학교

박시온 | 강호항공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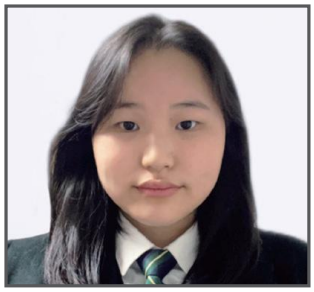
심지은 | 완산여자고등학교

양승주 | 호남제일고등학교

유다현 | 전주한일고등학교

유지석 | 전주한일고등학교

이수영 | 이일여자중학교



이승원 | 전일고등학교

이하늘 | 완산여자고등학교

임유진 | 이리여자고등학교

장희주 | 전주한일고등학교

정미강 | 완주고등학교

지수진 | 완산여자고등학교

최유나 | 강호항공고등학교

전라북도청소년 비상기자단 기사

전라북도청소년 비상기자단 기사

· 내가 만든 정책,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정미강 11
· 청소년이 만드는 지역사회 변화의 첫 걸음, 전라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 김정빈 12
· 즐겁고, 짜릿하고, 뭉클한 자원봉사 이야기, 전라북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김정빈 14
· 집 안에서 즐기는 온라인 봉사 박다은 16
· 청소년포상제에 대하여 이수영 17
·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는 어떤 동아리들이 숨어있을까? 이수영 20
·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위해 장희주 21
· 몽골과 한국 청소년 국제 교류 이하늘 22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행사 양승주 23
· 도쿄올림픽 다음은? 2021 완주군 청소년 랜선 체육대회! 정미강 24
· 전북 고교생 백일장 현상 공모 참가를 마치며 유지석 25
· 피할 수 없는 온라인 비대면 활동 200% 활용하기 정미강 26
· 인종차별,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김정빈 27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김정빈 29
· 일상 속 차별과 혐오의 씨앗들 유다현 30
· 소년법, 과연 폐지만이 정답일까? 김혜빈 32
· 청소년이 바라보는 소년법 양승주 33
· 청소년과 학교폭력 지수진 34
· '고교 학점제'를 바라보는 중, 고등학생의 시점 최유나 35
· 2021 변화하는 전북교육정책 특성화고 꿈 키움 성장 지원을 위한 "JB꿈키움카드" 최유나 37
·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특성화고 관광서비스과 청소년들 이하늘 38
· 마음이 고요할수록 이제야 밝아지는 것들 박시온 39
· 공사장의 소음과 학생들의 불만, 서로의 권리 장희주 40
· 역사 속의 청소년 유지석 42
· 미디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유다현 43
· 환경을 위해 변화된 우리 심지은 44
· 전동킥보드 법안 개정 이승원 45
· 신학기, 변화에 좌절하기보단 도전 하고자 박시온 46
· "5명 가족, 양해 구하고 돌려보내기 일쑤" 박온유 48
· 일상과 단절된 자가격리 박시온 49
· 코로나 블루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김혜빈 50
·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 고3 수험생들에게 접종 장희주 52
· 위드코로나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 최유나 54

청소년활동 지도자 칼럼

·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활동 김의숙 58
· 청소년활동, 코로나19를 기회로 뉴노멀시대로 나아갈 때 이태훈 59
· 가스라이팅의 시대, 안전 장치로 기능하는 청소년활동 이정선 60
· 방과 후 뭐하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박주희 61
· 차별의 사각지대, 청소년의 목소리 강다연 62
·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책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지연 63
· 자기주도 성장 프로그램, 청소년 포상제 김진재 64
· 청소년 기본수당으로 청소년의 바른 성장 환경을 만들자 육성룡 65
· 더 기본에 충실한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 김윤근 66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청소년활동 김광훈 67

청소년 활동

내가 만든 정책,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정미강 / 완주고등학교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사회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하나둘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전국 시 · 군 · 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서 현재 233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그중에서도 작년 여성가족부 우수사례 공모에서 2개 분야 모두 최우수상을 받아 청소년 참여 기구의 모범을 보인 '완주군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완주군 어린이 · 청소년 의회)를 통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완주군 어린이 · 청소년 의회'의 시작은 '어린이 · 청소년 의원 신청'을 통해 시작된다. 신청자가 모이면, 지역별로 선거구를 나누어 '실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예비 의원들의 공약을 직접 청소년들이 살펴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실제 선거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해 청소년들에게 선거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 청소년 의원 선거가 종료되면 예비 의원들이 실제 활동하는 의원이 된다. 역할은 의장, 부의장, 서기, 의원 총 4가지로 구분되며, 활동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약 한 달 단위로 실시되는 '임시회'와 6개월 단위로 실시되는 '본회의'가 있다. 모든 활동은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 두 가지로 분리되어 진행된다.

임시회는 각종 캠페인 계획이나, 정책 구상 회의로 각 사안에 맞는 내용의 주제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중 때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된다. 예를 들면, 어린이 ·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 '스쿨존 안전하게 완주하자'와 같은 캠페인이 이 임시회를 통해 탄생했다.

본회의는 임시회를 통해 계획된 정책들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회의다. 본회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실제 완주군의 군수와 군의회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그동안 계획해왔던 정책을 의결해나간다. 작년 청소년 의회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버스 낮은 손잡이 설치', '스쿨존 차량 속도측정계 정비', '완주군 버스 노선 확대', '청소년 놀이문화 혁신 및 직업체험 시설 확대', '편의점을 이용한 아동학대 예방 플랫폼 구축' 등의 청소년들의 각종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고 바로 답변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위와 같이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진행되는 것은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청소년이기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청소년기가 지나기 전에 꼭 한 번쯤은 참여해 잊지 못할 경험을 쌓아보았으면 좋겠다.

청소년 활동

청소년이 만드는 지역사회 변화의 첫 걸음,

전라북도청소년 정책제안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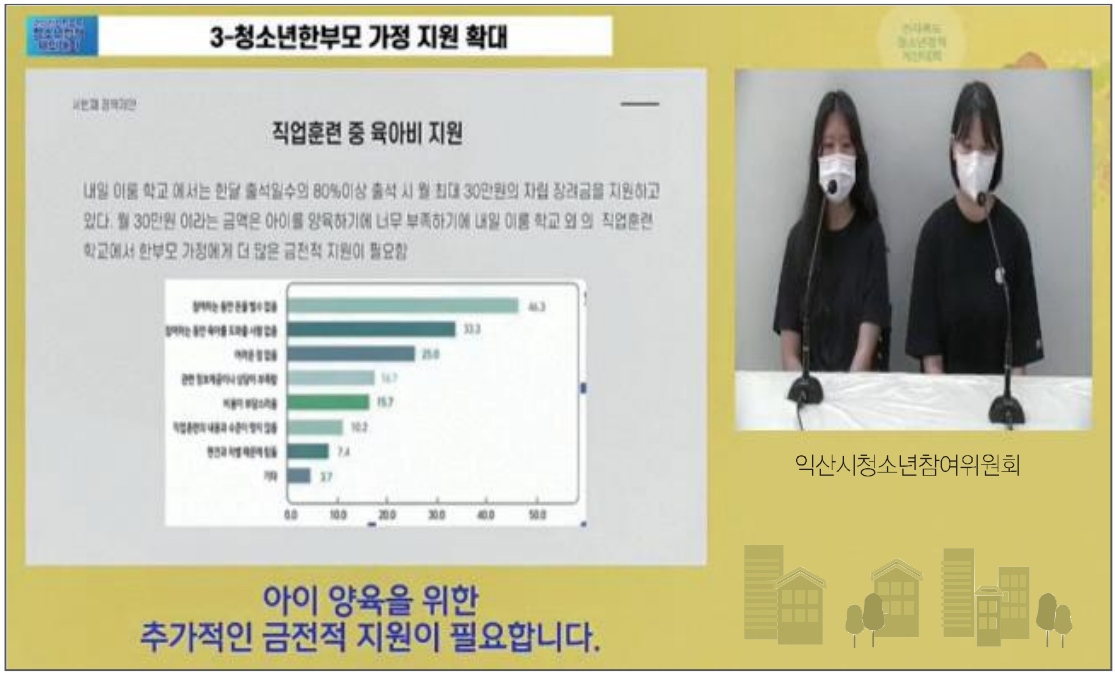
김정빈 / 이리남중학교

지난 9월 4일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2021 전라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개최했다. 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찾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할 수 있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의 바람으로 변화하는 전라북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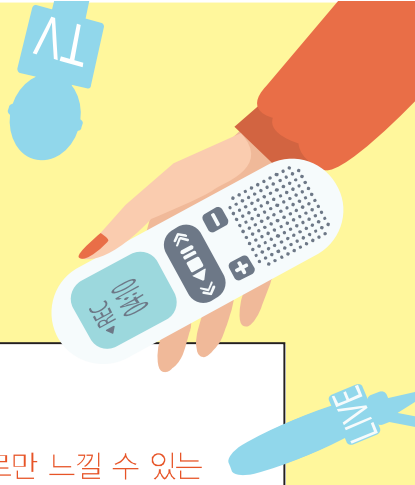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 프리젠테이션, 상황극,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형태로 9분 이내로 자신의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심사위원(50%)과 청소년심사단(50%)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대회의 대상(전라북도지사상)은 "청소년 한부모가정지원 확대" 정책이 가져갔다. 그 외에 "청소년 경제활동지원 사업", "주요환승버스장 응급처치매뉴얼 안내판 설치"가 최우수상(전라북도 교육감상)을 받았고, "청소년 우울증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전라북도 청소년기본소득 도입"이 우수상(전라북도회의 의장상)을 받았다.

정책제안대회 영상은 유튜브채널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가정지원 확대 정책을 제안한 대상 수상 청소년 인터뷰 내용이다.

Q. 전라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 참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대면으로만 느낄 수 있는 떨림과 기분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꼭 대면으로 참가하고 싶습니다.

Q. 전라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A. 팀원 모두가 학교를 다니며 정책제안대회 회의를 동시에 하다 보니 서로 시간이 맞지 않을 때도 많았고, 잦은 회의로 바쁜 일정 탓에 모두가 예민해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Q. 어떻게 '청소년 한부모가정지원 확대'라는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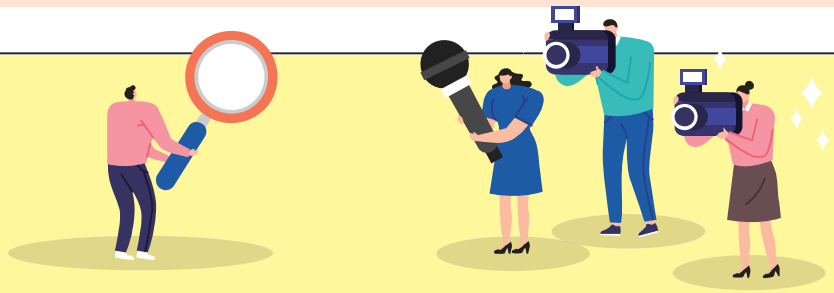
A. 팀원 분들과 제안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제안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제안을 선택했습니다.

Q. 앞으로의 청소년 정책과 관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저는 평소에 청소년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항상 생각하는 편인데 너무 큰 꿈이지만 그 정책들이 모두 실행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

청소년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책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활동

즐겁고 짜릿하고 뭉클한 자원봉사 이야기, 전라북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김정빈 / 이리남중학교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의숙)는 '2021 전라북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우수 청소년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정과 축하를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비롯하여 총 29개의 상을 시상했다. 자원봉사대회에서 '전라북도교육감상'을 수상한 청소년에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어떤 봉사활동을 했나요?

A. 익산시립도서관에서 서가 정리, 도서관입구 발열체크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을 주제로 한 전라북도 청소년원탁회의를 설계 및 준비를 하고, 퍼실리테이션을 운영했습니다. 그 외에도 소아암 인식 개선을 위해 소아암과 관련된 논문, 관련 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활동과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익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Q. 어떻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A. 학교에서 '환경'과 관련된 주제 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는 등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나는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진행하는 원탁회의를 보게 되었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요즘, 전라북도 청소년들과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해 참여하였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인가요?

A. 소아암 인식 개선 번역봉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영어 자료를 번역해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소아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봉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A. 소아암 인식개선을 위한 번역봉사의 시작은 자료 찾기입니다. 번역봉사를 시작할 때는 소아암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찾아 번역해야 했습니다. 해외 논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야하니 처음부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찾아보며 저만의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학과 관련된 주제이다 보니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조금 생소했습니다. 사실 소아암이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번역봉사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백과사전에서 그 단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 내용에 대해 깊게 이해 하고 번역을 하니 더욱 질 좋은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

2021 전라북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11월 18일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변화시켜 주기를 바란다.

청소년 활동

집 안에서 즐기는 온라인 봉사

박다은 / 전주솔내고등학교

현재 코로나로 인해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없어 봉사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봉사가 많아지고 있다. 온라인 봉사는 직접 만나지 않고 할 수 인성교육, 예방 캠페인, 또는 글 번역, 편지 쓰기 활동부터 집 안에서 물품을 만들어 보내는 활동까지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다.

그중 전라북도 인성교육연합회가 개최한 온라인 봉사 프로그램 '리더의 탄생 2'는 1월 17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석 후기글을 올린 청소년에게는 총 9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됐다.

'리더의 탄생 2'는 세상의 리더로 자라나기 위해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배워 따뜻하고 행복한 리더가 되길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고력'을 주제로 여러 강연과 활동을 펼쳤다. 하루에 3시간씩 3간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많은 중, 고등학생이 참여했다. 강연을 들은 청소년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용기,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일어서는 자세를 배웠다. 딱딱하고 지루한 강연이 아닌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강연부터 청소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과 다양한 상품들로 재미와 참여도까지 높였다.

또 해외봉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해외봉사 후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힐링 콘서트, 중간에 흥미를 더해주는 핑거댄스와 잼말놀이, 추리력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다양한 게임이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며 사고를 확장하고, 공감을 통해 위로하는 기회를 가졌다.

리더의 탄생 2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이 온라인 봉사를 처음 경험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처럼 온라인 봉사활동은 집에서 누구든지, 어디서든 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편리하고 자유롭다. 단점으로는 서버 오류나 다수 참여자로 인해 적극적 참여가 힘들거나 간접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생생함을 느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전을 위해 청소년 봉사활동이 어렵지만, 집 안에서라도 온라인 봉사에 참여해 각자의 마음을 키우며 공감하고, 화면을 넘나드는 따뜻함을 느끼며 소통의 즐거움을 알아가길 바란다.

청소년 활동

청소년포상제에 대하여

이수영 / 이일여자중학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만14세~24세)는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공인된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단계는 동장(6개월, 만 14세 이상), 은장(6개월~12개월, 만 15세 이상), 금장(12개월~18개월, 만 16세 이상)으로 분류되고, 활동 영역은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금장에 한함)이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신청방법

1. **e청소년 접속하여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접속**
2. **우리 지역 내 청소년포상제 운영기관 찾기**
3. **해당 기관 포상담당관과 상담 후 입회신청서 작성**
4. **활동영역별**(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활동) **세부 계획서 작성 후 활동 시작**

(입회비 –20,000원 동일(최초 입회 시 1회 납부) / 포상단계별 참가비 납부 동장 10,000원 은장 20,000원 금장 30,000원)

더 자세한 설명과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Q.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청소년포상제는 경쟁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기 바랍니다.

Q. 청소년들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는게 좋을까요?

A.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나의 모습을 그리며 활동에 참여하면 어느새 과거와 달라진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참여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A. 장점은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닌 자기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일정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매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참여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직접 경험해 본 청소년도 인터뷰를 해보았다.

Q. 현재 자신의 포상단계는 무엇인가요?

A. 동장입니다.

Q. 활동영역별 자신이 선택한 활동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봉사영역에서는 쓰레기 줍기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길거리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보고 그 쓰레기를 치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개발은 영상 제작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영상 제작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제작 능력을 기르고 싶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 신체단련은 배드민턴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라켓소년단〉을 보고 배드민턴을 해보고 싶어 선택하였습니다. 탐험활동으로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참여하는 전라북도 청소년들과 함께 전라북도 연합으로 자전거 종주를 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하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꾸준히 무언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하며 자신에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감회를 바탕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 자체가 도전이고 성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이렇게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개발하여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대한 참여와 경험이 자신의 진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청소년 활동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는 어떤 동아리들이 숨어있을까?

이수영 / 이일여자중학교

현재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는 총 23개의 동아리들이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이 이러한 동아리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 소속되어있는 동아리들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관 청소년지도사 선생님과 만나보았다.

▲ 봉사동아리-고양이를 부탁해 활동 장소

▲ 댄스동아리-인티마시, R.O.P, 2.1, 라온하제 외 9팀 활동 장소

▲ 밴드동아리-2RB, 락온하제 활동 장소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동아리는 대중(공연)문화예술, 사회참여, 스포츠, 취미, 미디어, 4차산업, 진로(유아교육), 패션/뷰티로 크게 8개로 분류할 수 있고 총 23개의 동아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로(유아교육), 미디어, 밴드동아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청소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저는 현재 미디어동아리 청소년휘모리장단이라는 동아리에서 청소년활동을 취재하고 영상으로 담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활동을 취재하면서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제가 잘 몰랐던 청소년활동들에 대해 알게 된 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처럼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동아리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활동 공간, 기구, 간식 물품과 장소가 제공된다. 이러한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해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를 찾아 스스로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길 바란다.

청소년 활동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위해

장희주 / 전주한일고등학교

지난 6월, 2021년 전라북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전주 객사 중부비전센터에서 개최됐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가 함께 주최한 이 곳은 청소년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지는 곳이었다.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 #우리들의 어울림마당' 이라는 문구를 내걸며 청소년들이 무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유튜브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채널 생방송으로 청소년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본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직접 해본 결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춤과 노래를 선보였다. 조명과 카메라 감독, 음향 감독과 방송 송출 등 스탭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었으며 참가자들은 대기실에서 시간 맞춰 나눠 올라오는 형태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하는 등 방역적인 면에서 우수한 점을 보였다.

참가자 청소년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춤에 관심을 가지고 취미로 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많이 참가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페이스북이나 공지사항, 선생님의 추천 등으로 인해 나와서 공연을 했다고 대답해주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끼를 표출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직접 나와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기는 하나,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방송으로만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아쉬웠다. 호응과 박수가 없으면 공연하는 이들도 사기가 떨어지거나 공연을 하러 와서도 스트레스를 잘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방송으로 보고 있을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 열심히 무대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

아쉬운 점은 시청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아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참여자가 늘지 않거나 아는 사람만 아는 무대가 되는 점이 아쉬웠다. 페이스북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청소년들의 공유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면 청소년의 어울림마당이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또한 중간 중간 퀴즈나 댓글 참여율을 통해 이벤트를 하는 것도 지루하지 않고, 화면을 넘어 기쁨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는 제한점이 있었지만, 좋은 공간에서 공연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다는 점도 있었다.

아는 사람들만 누리는 청소년 문화가 아닌, 청소년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무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청소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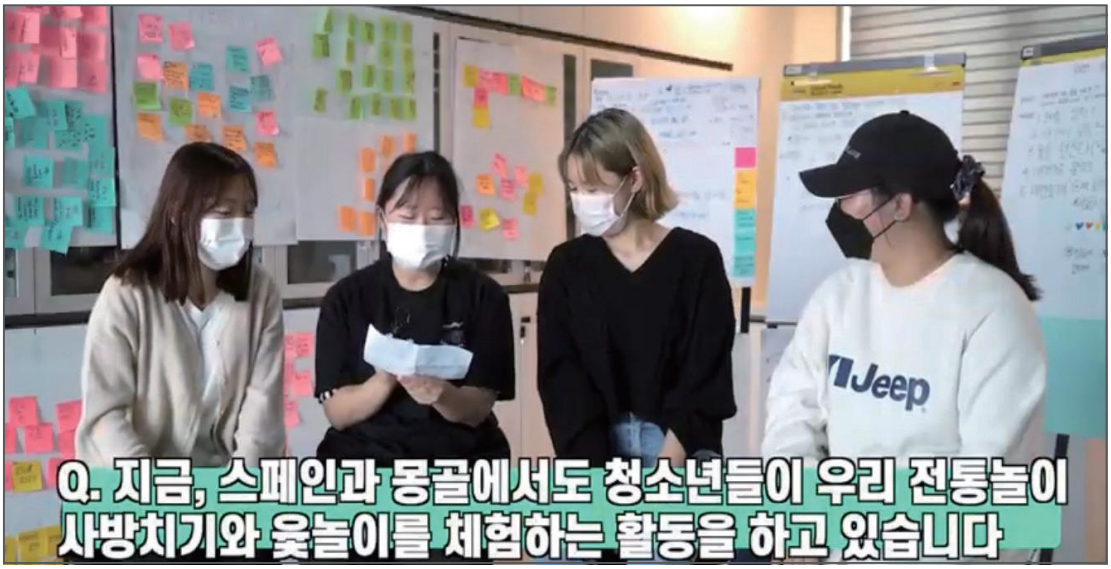
몽골과 한국 청소년 국제 교류

이하늘 / 완산여자고등학교

2021년 10월 30일 완산여자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몽골과 한국의 국제교류에 많은 몽골의 청소년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모였다. 이번 몽골 국제교류는 각국의 전통놀이를 융합하여 새로운 놀이를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몽골에는 '샤가이'라는 전통놀이가 있는데, 1개의 뼈에 4면의 동물이 정해져 있다. 복주머니 안에는 약 20개의 뼈가 들어있다. 완산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이 '샤가이'와 한국 전통놀이를 결합하여 '미션 코리몽'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다. '미션 코리몽' 의 뜻은 코리아, 몽골을 합친 합성어다.

이 행사에는 완산여자고등학교 외 청소년들도 많이 모였고, 한국전통놀이 전문가도 함께했다. 몽골어 통역가가 한국과 몽골 청소년들의 대화를 통역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을 마친 뒤 인터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소감을 발표했다. "다른 학교에서 만든 게임은 모두 흥미로웠어요. 이 교류 활동을 통해서 한국 청소년들과 몽골 청소년들은 온라인으로도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청소년들이 직접 의견을 모아 만든 게임을 해보는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몽골과 전통놀이를 통해 만남을 갖게 돼서 너무 기뻐요."



!

인터뷰 내용과 같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만큼 또다시 운영되길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완산여자고등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다.

청소년 활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행사

양승주 / 호남제일고등학교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세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맞이 전시회가 전주영화제작소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됐다. 전북지역 '위안부' 생존자의 기록 전시와 한성원 작가의 '할머니, 우리 할머니' 책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었다.
QR코드로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을 만나볼 수 있고 천 마스크에 평화의 나비 그리기 체험도 할 수 있었다.

일본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전쟁을 일으켰던 장소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취업이라는 거짓말로 혹은 강제로 여성들을 끌고 가 폭력과 성폭행, 고문등에 시달리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묻히지도, 화장되지도 못 한 채로 바다에 버려지고 산에 버려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겨우 살아서 돌아간 사람들도 가족들한테 내쳐지거나 결혼을 한 후에도 아이를 낳지 못 해 이혼하거나 폭력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을 시작으로 전 세계 수많은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이 용기를 내 일본에 진정한 사죄를 요구한지 30주년을 맞이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14일이다.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전까지 민간에서 진행돼 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여성가족부에서 연 기림의 날 영상 기념식에 메시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김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 할머니들은 가슴에 묻어온 고통을 증언했고 우리는 할머니들을 통해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를 성찰할 수 있었다"며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의 성숙 역시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외 법정과 증언장에서 울려 퍼진 할머니들의 증언은 여성의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를 크게 진전시켰다"며 "할머니들께서 역사를 바꿔 오셨다. 전쟁과 전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증명해주신 할머니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 국가와 군대, 가부장제에 의한 폭력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기억하여 다시는 반복되지를 않길 바란다.

청소년 활동

도쿄올림픽 다음은? 2021 완주군 청소년 랜선 체육대회!

정미강 / 완주고등학교

완주군은 2016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로 총 4회에 걸친 아동 · 청소년 권리축제를 진행해 왔다. 아동 · 청소년 권리축제는 아동 · 청소년들이 기획과 진행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완주군 청소년 축제기획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방식과 이름으로 매년 찾아가고 있다. 작년부터 유행한 코로나의 여파로 비대면 축제로 진행한 완주군 청소년 축제기획단장 김수정 청소년을 만나 인터뷰해 보았다.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군 청소년 축제기획단에서 단장을 맡은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 네, 이번 축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아무래도 코로나가 지금처럼 막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만나기가 어려운 만큼 만나지 않아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해보자는 마음으로 최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도쿄 올림픽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각각의 경기를 진행하고, 그 모습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서로서로 응원하는 하나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 올림픽처럼 구상해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모바일 퀴즈대회 "유스 퀴즈 온 더 블록", 모바일 게임대회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토너먼트 대회", 건강 걷기 대회 "뚜벅, Do Walk", 우리 반 뽐내기 "우리가 제일 잘 나가"로 운영되었습니다.

▶ 들을수록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전하고 싶은 사항은 없나요?

▷ 아무래도 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만큼 응원전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응원 챌린지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운영 영상은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 그럼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활동

전북 고교생 백일장

현상 공모 참가를 마치며

유지석 / 전주한일고등학교

필자는 제25회 전북 고교생 백일장 현상 공모에 참가를 하게 되었다. 2021년 8월 9일부터 9월 24일까지 전북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및 고교 재학에 해당하는 홈스쿨링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현상 공모였다. 주제는 각자가 자유롭게 쓰고 싶은 주제로 쓸 수 있었다. 운문부는 시 1편 이상, 산문부는 수필 1편 이상을 작성해야 했다. 이 대회는 총 46명에게 9백여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는데, 장원은 운문부와 산문부에서 1명씩 (재)목정문화재단 이사장상과 전라북도교육감상, 그리고 상금 100만 원을 수여했다. 또한 작품을 가장 많이 제출한 학교인 작품 다수 제출 학교에게는 ㈜미래엔 제공 도서교환권 100만 원을 수여했다.

필자는 이 현상 공모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들을 얻었다. 자신이 직접 글을 쓰는 과정에 얻는 즐거움은 꽤 컸다. 혼자 생각에도 잠겨보고,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영감을 얻는 등 이러한 경험들은 이번 현상 공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아마 경험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쓴 작품들을 누군가에게 심사 받는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오지 않을 기회였던 것 같다. 물론 직접 심사평을 받진 못하지만 자신이 쓴 작품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른 방식으로도 글을 써보고 혹은 아쉬웠던 부분을 수정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재밌는 경험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

이번 백일장 현상 공모를 마치면서 다음에도 있을 백일장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 활동

피할 수 없는 온라인비대면 활동 200% 활용하기

정미강 / 완주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신학기부터 비대면 수업이나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다시 시작된 비대면 협동 과제들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협동 과제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직접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에, '비대면'으로 만났지만, 마치 '대면' 한 것과 같이 협동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온라인 플랫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 다양한 문서작업을 동시에! '구글 독스'

구글 독스는 구글의 사무용 프로그램으로 설치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과 구글 계정만 있으면 아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과 PC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한글과 같이 문서를 작성하는 '문서', 엑셀처럼 자료를 정리하는 '스프레드시트', PPT를 제작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온라인으로 손쉽게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는 '설문지'까지 총 4개의 사무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개의 프로그램 모두 '공동작업자' 기능을 통해 여러 명이 다른 컴퓨터로 같은 파일을 동시에 편집할 수 있고, 내용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또한, 모든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자동 저장되며 다양한 확장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메일을 발송하거나, 복잡한 자료를 간단히 정리해주는 등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

▶ 비대면 활동을 전문가처럼! 'OBS Studio'

OBS Studio는 주로 방송과 관련된 활동에 자주 쓰이는 PC 프로그램이지만, 다양한 비대면 발표나 면접이 늘어난 요즘, 이러한 비대면 활동에서 자신의 발표를 마치 하나의 전문적인 방송처럼 보이게 해주기에 대면 면접보다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기존 비대면 면접이나 발표에서는 캠 화면, PPT 자료, 영상 등을 한 화면에 모두 담기 어려웠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화면을 일종의 '캔버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한화면 안에 TV 방송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다. PPT 화면을 띄워두고 오른쪽 아래에 캠을 띄워두거나, 말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띄우거나, 다양한 카메라를 묶어서 한 화면에 동시에 띄우는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구성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회의 중에도 실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는 편의성, 다양한 확장프로그램, 모션 그래픽 등의 무궁무진한 활용도를 가진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로그인 과정, 시간제한, 광고와 같은 제약이 전혀 없이 완전 무료로 제공되기까지 한다. OBS Studio는 대표적인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지원하기 때문에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연결되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위에 소개한 무료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한다면, 온라인 비대면 활동에서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자신의 매력을 보일 수 있도록 해준다. 더는 온라인 비대면 활동을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200%' 활용해보도록 하자.

청소년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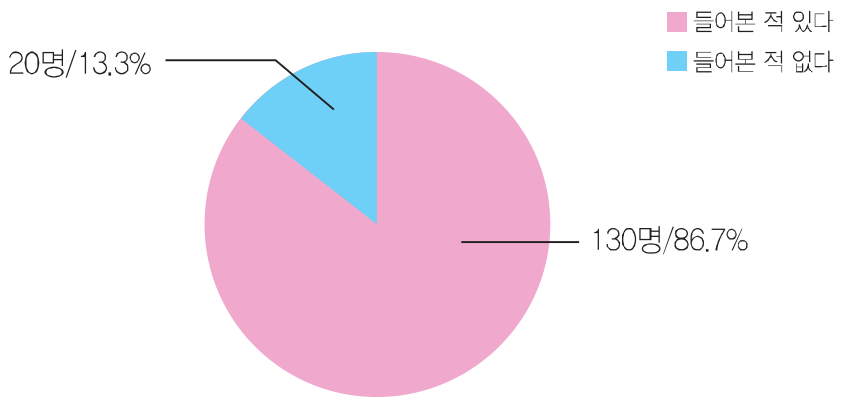
인종차별,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김정빈 / 이리남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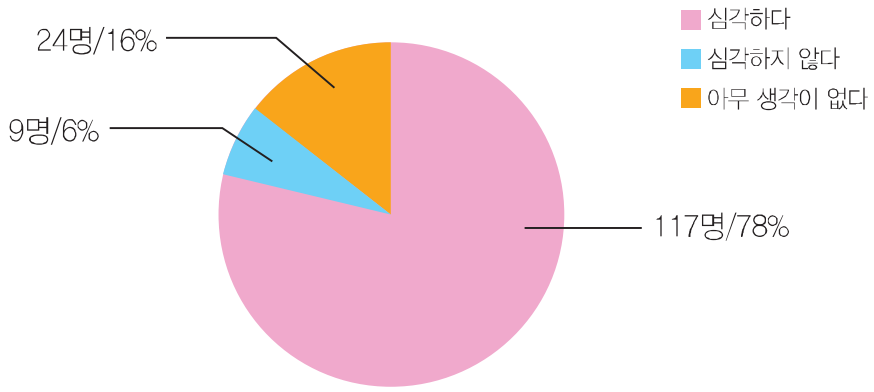
살면서 인종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요즘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이 있다. 바로 2020년에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건, 2021년에 일어난 애틀란타 총격 사건이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종차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청소년들은 이러한 인종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를 알고 싶어 전라북도 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라북도 청소년 150명 중 86.7%는 인종차별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고, 13.3%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Q. 평소 인종차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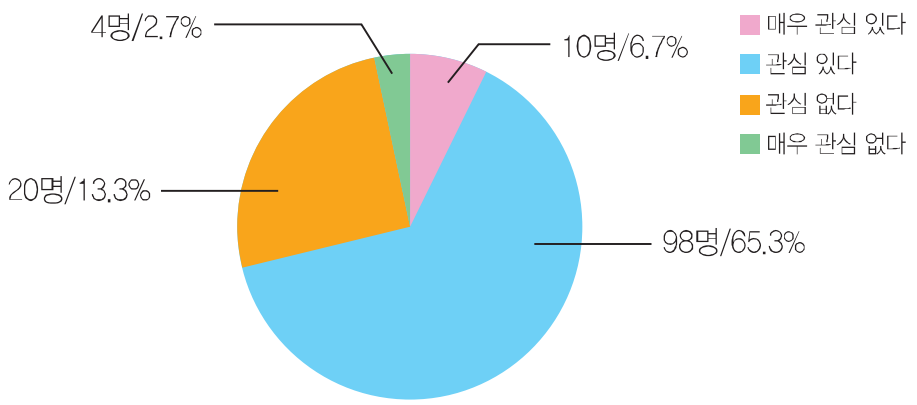


Q. 인종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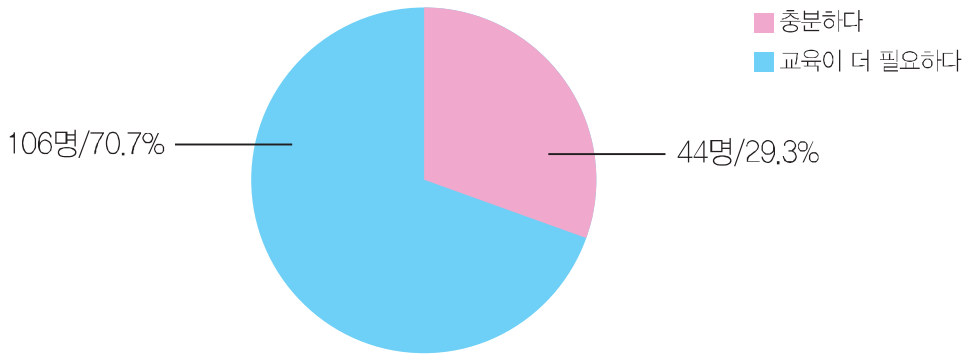
전라북도 청소년 150명 중 78%는 인종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24%는 심각하지 않거나 아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Q. 인종차별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전라북도 청소년 150명 중 72%는 인종차별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28%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Q.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라북도 청소년 150명 중 70.7%는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29.3%는 충분하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청소년들은 인종차별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종차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고, 인종차별에 관심이 있으며,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한 청소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굳이 인종차별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나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심각하지만 동양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촌 시민이라는 의식을 지녀야 한다. 인종차별이 동양에서는 그리 심하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세계의 문제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청소년 시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김정빈 / 이리남중학교

지난 기사에서 전라북도 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150명 중 72%는 인종차별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28%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인종차별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혀 청소년들이 인종차별에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 하고 싶은 책은 앤지 토머스의 '당신이 남긴 증오'이다. 이 책은 주인공 스타의 삶과 그녀가 현대 미국에서 흑인 소녀로서 직면한 인종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 을 읽으면서 필자는 실제로 경험한 것과 같은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인종차별을 실제로 겪어보지 않아서 어떤 느낌인지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은 흑인 스타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 인종차별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피해 인종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지를 자세하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흑인 소녀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차별과 혐오에 대처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차별이 사회적 이슈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세계에서는 동양인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비하하는 말까지 했다. 이제 인종차별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인종차별에 관한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종차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청소년 시선

일상 속 차별과 혐오의 씨앗들

유다현 / 전주한일고등학교

지금 여기, 무탈한가요? 라는 책을 보자마자 표지에 써있는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다' 라는 역설적인 부제목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다. 이 책은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은 사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먼저 사회 문제를 크게 세가지의 주제로 나누고 환경, 지역 격차, 교육, 가족, 동물, 난민, 장애인, 노동자, 젠더, 부동산, 소득 불평등, 종교, 미디어, 정치로 다시 한 번 분류하여 분야별로 퍼져 있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 그에 대한 의견과 질문 등을 던지며 사회문제에 관한 고민에 빠지게 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분야는 미디어이다. "검색이 사색을 대신한 시대에 사람들은 숲이 아니라 나무, 아니 나무는 커녕 잔가지와 나뭇잎만을 붙들고 바라본다. 그러면서 숲을 보았다고 착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조회 수나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언론사를 비롯한 유사 언론들과 유튜브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고, 허위 보도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 과학적인 말로 포장된 검색엔진을 무작정 신뢰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1인 미디어 세대를 맞아 누구나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쉽게 즐길 수 있지만 그 정보들이 믿을만 한 자료인지, 가치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경험적으로 자연히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우리도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소비해야 한다.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다보면 보다 덜 위태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분야는 환경이다. 이 책을 읽기 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뜨거운 여름을 나는 그저 더워서, 불쾌 지수가 높아서 좋아하지 않았다. 집이나 학교에서 에어컨을 빵빵 틀면 괜찮아질 일이었다. 하지만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꾸리기 어려운 독거노인들, 에어컨을 구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해 열사병이 발병하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사회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폭염이 사람을 덥게는 만들지언정 죽게는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읽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그동안 당연시 했던 것들이 어긋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분야는 지역 격차와 교육이다. 전주에 살며 고등학생인 내가 가장 공감하며 읽을 수 있었던 주제였다. 나와 같은 나이지만 강남 8학군의 학생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입시를 도전하고, 수월하게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유튜브를 통해 알았다. 대치동 학원을 다니며 몇백만원의 과외를 듣는 학생들과 출발선 자체부터 다른데 어떻게 경쟁력을 한단 말인가. 또한 수도권은 지하철로 몇 개의 역만 이동하면 영화, 연극,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시설이 있다. 문화 시설을 즐기기

위해 전주와 서울을 한 번 다녀오면 대략 오만 원의 교통비와 왕복 여섯 시간이라는 시간이 들었다. 티켓값을 비롯한 비용까지 생각하면 이십만 원은 훌쩍 넘는데, 학생인 나에게는 전부 사치다. 지방의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대학의 꿈을 줄이고, 취미 생활을 줄여야 한다는 현실은 괜찮지 않은 사회 이야기다. 지금껏 지역 불균등 발전을 무시하고 성장해 왔던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책을 다 읽고나니 그제서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표지가 눈에 들어왔다. 가장 위에 서있는 사람, 누군가의 몸을 누르고 지금 여기 서있는 남자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표정을 감추고 힘겨운 자세로 지탱해주고 있다. 오찬호 저자가 전하고자하는 메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가장 처음 말했던 역설적인 부제목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은 사회를 들여다보고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면과 만연해 있는 불평등, 무의식적인 차별에 대해 짚어볼 수 있었다. 사회 문제에 대해 제법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라 생각했었는데 책을 읽고난 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사회를 잘못 바라보던 나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준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와 같은 경험을 하길 바란다.

청소년 시선

소년법, 과연 폐지만이 정답일까?

김혜빈 / 정읍여자고등학교

최근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대두됨에 따라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또한 14세 이상 청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이 20년밖에 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소년법의 목적부터 살펴보자.

소년법 제 1장 총칙 제 1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듯 소년법은 소년범의 교화와 올바른 사회화에 초점을 맞췄다. 물론 여론처럼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청소년 범죄 해결에 있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청소년기는 자아를 확립하고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교도소에서 반사회적인 인물들을 마주하며 형을 살게 된다면, 소년범들 역시 반사회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교화의 목적으로 강한 처벌만을 내세운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도덕성은 어른들의 도덕적 행동을 보고 배우는 '모델학습'을 통해 얻는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도덕적 행위 모델의 범위가 확장되기에 반사회적인 인물들을 통해 비도덕적 행동규범을 쌓게 된다면 결국 이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만을 요구하기 이전에, 청소년 범죄의 주요 원인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범죄는 가정과 사회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아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년범이 어떻게 범죄까지 이르렀는지 이해하고, 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년범들은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소년범들의 올바른 교화가 이루어져 그들 역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시선

청소년이 바라보는 소년법

양승주 / 호남제일고등학교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나이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사회에서는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아직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미숙하다고 여겨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한다. 친동생 도끼 살해, 구리시 초등학생 살인 사건, 강원도 청소년 차량 절도 사건,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남녀 후배 감금 및 음란행위 강요,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정말 수없이 많은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촉법소년들.

위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에게 별도의 처벌을 내리지 않고 모두 훈방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촉법소년을 벗어난 나이라고 해도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1호~10호 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빨간 줄이 남지 않는다.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11,958명), 방화(1,043명), 살인(116명)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감형을 받은 10대가 5년동안 무려 1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소년법을 악용 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뜨거운 화제가 됐는데, 도저히 미성년자의 짓이라고 믿겨지지도 않는 범죄들이 계속해서 인터넷 뉴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소년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소년법에 해당되는 나이인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어떻게 바라볼까 알아보기 위해 두명의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소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 1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질이 나쁜 소년법으로 처벌을 피한 사례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처만 남기고 가해자는 후유증을 남긴채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게 청소년을 위한 법이 아닌 그저 가해자를 위한 법 같습니다."

청소년 2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아직 판단이 미숙한데 큰 처벌을 받는다면 재범률도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기에 청소년들 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범률이 높은 현 상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화 프로그램의 질이 낮기 때문인 것 같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아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 청소년들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소년법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소년법에는 문제가 있는것 같다는 의견은 둘 다 같다. 1958년 이래로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 일부 개정을 한지 어느덧 1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는 소년 범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소년법 이제는 개정이 필요할때가 아닐까?

청소년 시선

청소년과 학교폭력

지수진 / 완산여자고등학교

이번 기사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최근 다양한 유명인들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 내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학교폭력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모두 포함 될뿐더러 최근 사이버상의 폭력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학교폭력은 어쩌면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많은 또래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주제 중 하나이다.

또한 소년법에 의해 가해자들이 보호받고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들은 쉽사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서운 징계는 퇴학이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우리 청소년들이 인생에 한 번 뿐인 학창생활을 더욱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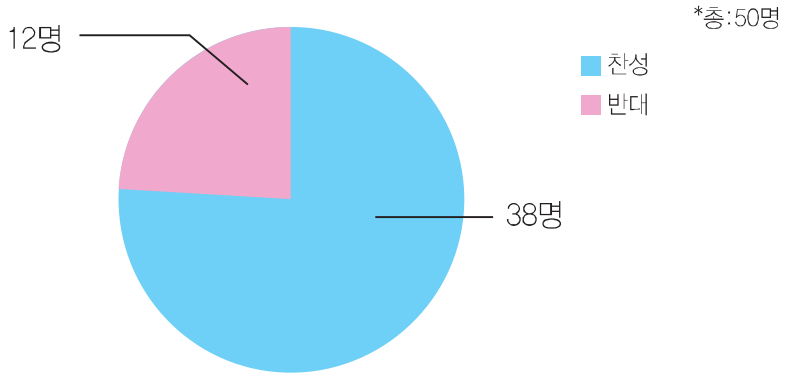
'고교 학점제'를 바라보는 중, 고등학생의 시점

최유나 / 강호항공고등학교

고교 학점제란 고등학생들이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 중 하나로, 2017년 11월 27일 날 교육부 측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서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후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으로의 입시를 준비하는 중고등 학생이라면 가장 중요하고 관심 깊게 봐야 할 교육 제도 이어 중요한 교육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필자가 직접 문항을 작성하여 전주, 고창에 위치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3학년을 합한 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해보았다. 가장 먼저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어쩌면 많은 관심이 있을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투표를 할 수 있는 설문지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에 대해 38명은 찬성, 12명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고교학점제의 대한 중학생 시점



찬성, 반대 측 한 명씩 의견을 인터뷰해보았다.

Q. 고교학점제에 대해 왜 찬성(반대)을 왜 선택하셨나요?

중학교 찬성 의견의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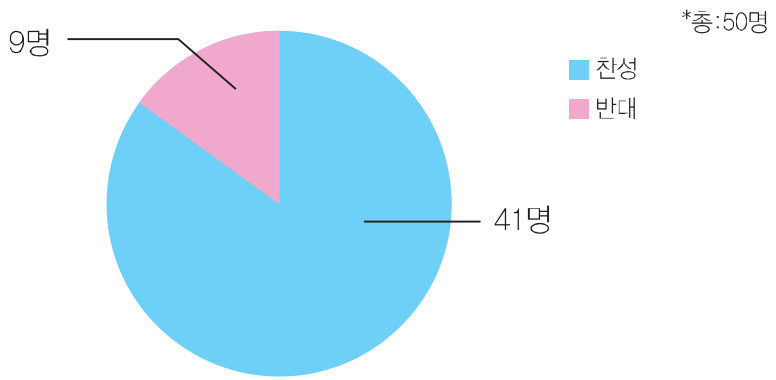
"딱 필요한 과목만 배운다면 다른 과목에 쓸 시간을 필요한 과목에 더 투자할 수 있어,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입니다."

중학교 반대 의견의 학생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 과정을 따르고 싶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처음 들어보았고, 자세한 내용을 알면 찬성을 해볼 만 한데, 새롭게 바뀐다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하는 현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에 대해 41명은 찬성, 9명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고교학점제의 대한 고등학생 시점



Q. 고교학점제에 대해 왜 찬성(반대)을 왜 선택하셨나요?

고등학교 찬성 의견의 학생

"고등학교 때 자퇴하는 학생들의 사유를 보면, 자신이 추구하는 꿈하고는 거리가 먼 과목을 배우는 것이 시간 아까워합니다. 자퇴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 고교학점제를 진행하면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반대 의견의 학생

"이미 선행 학습을 했던 친구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 다니며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선행한 학생들은 저를 포함해 여러 명이 있는데 만약 고교학점제도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

이러한 설문조사,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갑작스러운 도입에 의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혼란스럽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교육부는 하루 빨리 고교학점제에 대해 중고등학생들의 의사를 조사하고, 자세한 내용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 시선

2021 변화하는 전북교육정책 특성화고 꿈 키움 성장 지원을 위한 " JB꿈키움카드'

최유나 / 강호항공고등학교

2021년 6월 28일 전라북도교육청과 농협은행 전북 본부가 특성화고 꿈 키움 성장 지원– 취업준비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새롭게 달라진 전북교육정책은 특성화고 꿈 키움 성장 지원, 특성화고 안전한 실습환경 구축, 원격수업 사례 발굴, 확산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꿈 키움 성장 지원의 내용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직업역량 강화 및 현장실습 및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4,000명에게 1년 단위로 누적 점수에 따라 1인당 최대 500,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때, 누적 점수란 진로, 경로설정, 기술역량함양, 실습, 취업의 영역별로 직업교육 활동을 설정하고 학생이 교육활동 이행시, 자격증 취득에 점수점수 부과하여 누적시켜 취업준비금으로 지급한다. 이러한 누적 점수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JB꿈키움카드를 통해 학생들에게 취업준비금으로 지급된다.

JB꿈키움카드로는 교재구입, 자격증 취득, 학원수강료, 기업탐방 및 면접 등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맞춤 설정된 카드다. JB꿈키움카드를 쓰게 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세한 내용과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싶어, 전라북도 고창군에 위치한 강호항공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인터뷰 해보았다.

강호항공고등학교 3학년 김민재 학생

Q. JB꿈키움카드의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성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나 학습을 통하여 성취를 하여 보상을 받음으로써 저를 더욱 성장 시킬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Q. JB꿈키움카드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할것인가요?

A. 가장 먼저 공기업 NCS 문제집을 구매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공사를 탐방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Q. JB꿈키움카드의 규정 중 변경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나요?

A. 가장 먼저 공기업 NCS 문제집을 구매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공사를 탐방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

강호항공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3학년 김민재군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 알 수 있듯이 전라북도교육정책의 직업역량 강화 및 현장실습 및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하여 꿈을 키우는 목적이 현재의 청소년의 시점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좋은 정책이며,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겐 완벽한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시점으로써 JB꿈키움카드의 사용처의 범위에 대한 기준들은 다시 들여다 볼 점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시선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특성화고 관광서비스과 청소년들

이하늘 / 완산여자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일차적으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다. 전주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인 완산여자고등학교에는 관광서비스과, 재무회계과, 금융통상과와 같은 학과가 있고, 각 학과와 관련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중 관광서비스과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자.

관광서비스와 관련한 직업으로는 호텔 직원, 바리스타, 승무원, 공사단, 바텐더, 관광 가이드, 테마여행 기획자, 항공화물 운송 등 매우 다양하다. 이중 필자의 주변에는 바리스타, 승무원, 호텔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

다음은 완산여자고등학교 관광서비스과의 청소년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인터뷰 내용은 청소년의 생각을 말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전문가를 찾아 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취득하기를 추천하는 자격증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아무래도 관광서비스 분야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서비스 자격증인 SMAT를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어 자격증 HSK 를 추천드립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아 관광 수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Q. 관광서비스 분야는 범위가 넓은데 서비스 자격증인 SMAT만 필요하나요?

A.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관광서비스 분야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상대 할 수 있는 중국어 자격증(HSK), 영어(토익) 등 어학 관련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Q. 현재 무슨 자격증을 준비 중 이신가요?

A.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 여러 기업의 채용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중입니다.

Q.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나요?

A. 네.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난 방학에는 방과후수업으로 중국어를 배웠는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 뿐 아니라 선배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

지금까지 관광서비스과 청소년의 인터뷰를 들어보았다. 완산여자고등학교 관광서비스과는 새로 개설된 과로, 총 인원은 40명이라고 한다.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소년들을 응원한다.

청소년 시선

마음이 고요할수록 이제야 밝아지는 것들

박시온 / 강호항공고등학교

지금의 청소년들은 가장 고민이 많고,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주변의 압박감 때문에, 기대 때문에 자존감은 물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 되찾기 힘든 상황이다. 과연 지금까지 잘 해왔던 일을 멈춰버려야 내가 좀 더 편안해질까?

점점 나에 대한 솔직함, 지혜를 잃어가고 있는 당신은 무척 우울하다. 필자 또한근심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다. "지금 살아가는데도 벅찬데 꼭 굳이 각박한 상황 속에서 남들과 경쟁을 해야 할까?" 등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했다.지금까지 자신이 자책하고, 실망한 이유는 이제껏 '남의 나'로 살아가고 있어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울적한 마음을 내 탓으로 돌린 건 아닐까?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종종 내가 외로운 이유를 떠올린다.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수용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남의 자리에서도 진짜 자기의 모습을 감춘 채 드러내기에 유대감이나 연결은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만 남는다. 상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나 상대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이기적인 마음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상대의 이야기를 공감해줄 때, 타인과 연결이 생겨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도 소외감은 덜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을 할 것이다.

"너의 소확행은 언제야?"

소확행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이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변을 못 내는 경우도 있다. 항상 목표를 성취해야 나는 진정한 행복하다고 느끼지, 작고도 확실한 부분에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마음의 여유 공간이 부족하거나 먼 미래만 바라보고 버틴 건 아닌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놓쳐버린다는 것이 너무 욕심이 과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내 주위에서 찾은 행복에 집중하고 감사히 여긴다면 그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소확행이 되지 않을까?

!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분석하면서 얻는 배움보다는 자신이 직접 노력하고, 찾은 깨달음의 배움이 나를 성장시키는 진정한 방도이지 않을까 싶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내가 놓쳤던 것들이 나를 더욱 빛나게 밝히는 멋진 청소년들이 되면 좋겠다.

청소년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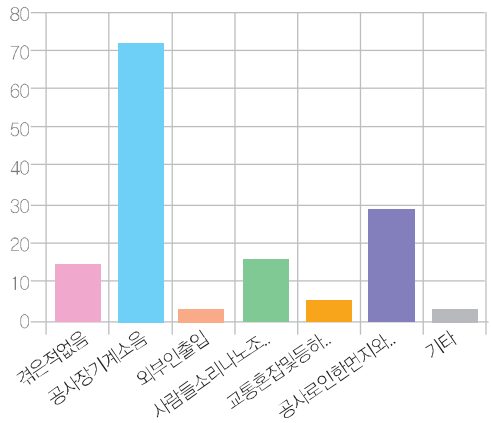
공사장의 소음과 학생들의 불만, 서로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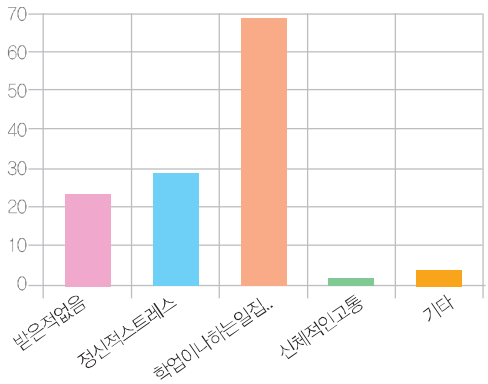
장희주 / 전주한일고등학교

공사장은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사는 곳들을 둘러보면 공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사장이 학교 앞에 있다면 어떨까? 전주 한일고등학교 앞에는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 번 끝나고 난 뒤 또 다른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 이유로 공사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재학중인 청소년 2, 3학년을 합해 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해보았다.

최근 공사장에 불편을 느낀 적이 없냐는 대답에는 예가 81%로 공사장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꽤 많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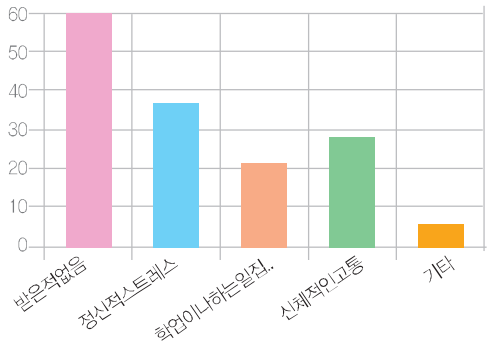
만약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어떤 점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나요? 라는 질문에는 72%가 공사장 기계 소음에 의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 뒤로는 공사로 인한 먼지와 유해물질(29%), 사람들의 소리나 노조 시위(16%), 겪은 적 없다(15%), 교통 혼잡 및 등하교 불편 (5%), 외부인 출입 (3%), 기타 (3%) 가 뒤를 이었다.





그로 인해 받은 피해가 있다면 어떤 피해를 받았나요? 라는 질문에는 학업이나 하는 일 집중 방해 (69%), 정신적 스트레스 (29%), 받은 적 없음 (23%) 기타 (4%), 신체적 고통 (2%) 등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방해가 가장 많았다.

공사장의 불편함을 개선할 가장 적합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에 대한 답변은 공사 기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60%),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 (37%), 유해물질과 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 (28%), 노조 시위 시간대 하교 이후로 조정 (21%), 기타 (6%) 이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청소년들의 학업이나 시험, 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는 답변이 많은 것도 볼 수 있었다. 소음에 관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 한일고등학교에서 본 공사장 사진

이러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동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다. 튜브나 방음커버 등은 설치 · 해체가 용이하고 현장 내 소운반이 가능하여 현장 근처에 설치함으로써 방음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시행해 본 사례가 있다. 저소음 공법이나 저소음 장비 등을 투입해 소음 발생 행위를 분산시키고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등의 대책으로 인해 30% 가량 소음 데시벨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책들을 보며 공사장의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근처 공사 현장은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잘 움직이지 않는다. 조금만 참으면 끝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주민 뿐 아니라 인근 학교의 청소년들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공사 업체와 지역사회에서 인지하지 못할 것이며, 또다른 비슷한 상황에서도 개선될 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앞장서 방안을 강구하고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시선

역사 속의 청소년

유지석 / 전주한일고등학교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퍼지다.

6월 민주항쟁이란

1979년 12 · 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이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그해 5월 이 사건이 은폐 · 축소된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에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6월 9일 이한열 군이 시위 과정의 부상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면서,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 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6월 민주항쟁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전국적으로 전개된 항쟁으로 이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9번째 개헌을 이루어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려 16년 만에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 속에는 청소년들의 노력도 빛났다.

일제강점기 아우내 3 · 1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인 유관순은 서대문 감옥의 지하 감방에 감금되어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고문을 당할 때 그녀의 나이는 18세였고,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일을 기점으로 일어난 6.10 만세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독립운동이었다.

1929년 11월 광주에서 시작되어 이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벌어진 3 · 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진 항일운동인 광주학생항일운동 또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시위운동이었고, 1960년 3 · 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난 울산 지역의 민주주의 운동인 4.19 혁명은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시작돼 당시 울산읍민과 울산여자중 · 고등학교 학생, 울산중학교 학생 등이 합류해 시위를 한 사건이다.

이렇듯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 청소년들이 보여준 지조와 절개,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으니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낸 나라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 시선

미디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유다현 / 전주한일고등학교

'신문과 방송이 입을 열면, 대중들은 술렁이고 판결은 흔들린다. 미디어는 어떻게 법정을 스튜디오로 만들었는가.' 〈미디어 재판〉은 극적인 실제 사건들과 언론의 관계를 집중 조명한 여섯 부작 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다. 그중 5화 '환호하는 구경꾼' 은 미디어의 나쁜 영향력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이며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가장 가까운 에피소드이다.

두 딸의 엄마인 한 여성을 미국에서 집단 성폭행한 여섯 명의 포르투갈계 이민자 남성들이 기소되며 재판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대중들의 관심은 쏟아졌고 방송사는 전 국민이 지켜보도록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자며 터무니없는 의견을 제안한다. 투명성을 중요시한 판사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법정에 카메라가 들어오는 제안을 승낙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출신 학교들이 알려졌고 이는 전국적으로 방송에 송출되어 끔찍한 2차 가해가 시작되었다. 또한 당시의 언론은 가해자가 '포르투갈 이민자'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이는 국민의 국적 혐오를 불러왔다. 아무 죄 없는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은 피해자 여성을 비난하며 끝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솜방망이 처벌로 판결난 재판이 끝난 후 2년 뒤 피해자는 계속 되는 2차 가해와 성폭행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다. 하지만 이를 보도하는 방송사는 없었다.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자극적이고 사실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보도로 대중들을 선동하는 우리 언론이 떠올랐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논란을 확대하고 흥미로운 가십으로 소비하는 미국의 언론사들의 모습은 현재의 우리나라 언론계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가짜뉴스뿐만이 아닌 조회 수나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잘못된 정보들을 양산해내는 유튜브와 유사 언론들로 인해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는 현저히 낮다.

언론사들은 언론 윤리강령과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노력하여 무너진 신뢰를 쌓아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유사 언론에 제재를 가해 허위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팩트체크(fact check)'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팩트체크는 단어 그대로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팩트체크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팩트체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분별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우리도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소비해야 한다.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다보면 보다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시선

환경을 위해 변화된 우리

심지은 / 완산여자고등학교

우리가 환경을 위해 변화된 것은 별로 없지만, 그 작은 것들이 매우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무엇이 있을까?

첫번째 - 라벨지 사용 줄이기

편의점에 가면 삼다수, 아이시스 등 다양한 브랜드의 물이 있다. 무라벨을 선언한 시기가 2021년 3월 3일이다. 라벨지는 상품 이름을 알려주는 이름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래도 무라벨을 시행하고 난 뒤로 비닐 쓰레기가 무려 30t이나 줄었다고 한다.

두번째 - 친환경 빨대 사용하기

친환경 빨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더 없애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카페 중에서 스타벅스는 지금도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다른 카페들도 점점 종이 빨대를 쓰는 추세이다.

세번째 - 배달 음식 줄이기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면,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들이 많이 온다. 잘 씻어서 버리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물이 묻어 있는 채로 버리는 것이 문제다. 바나나맛 우유로 유명한 빙그레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의 제대로 된 재활용 방법을 알리고자 '단지 손세탁 챌린지'를 시행을 했다.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이기에 SNS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청소년 시선

전동킥보드 법안 개정

이승원 / 전일고등학교

요즘 길거리를 보면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용 시의 안전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호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주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36.49%만 준수한다고 답하였으며(자동차도로, 자전거도로 주행), 나머지 63.51%는 준수하지 않는다고(보도 주행) 답하였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자 설문 결과 91.1%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한다고 답하였다.

이에 정부는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힘썼다.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등에 관련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코로나 19

신학기, 변화에 좌절하기보단 도전 하고자

박시온 / 강호항공고등학교

코로나 이전 3월의 모습은 새로움과 설렘으로 가득했다면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신학기의 모습은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변화의 맞춰 새로운 적응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올해 개학 후 학교생활은 어떨까? 두 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보자.

▶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000입니다.

▶ 올해 학교생활 어땠나요?

작년 학교생활은 기억에 남는 추억이 떠오르지 않아요. 바랬던 학교 행사들이 취소되었고, 그나마 고등학교 생활의 첫 단추인 1학년이 잘 메꿔지지 않아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오직 그 시절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없어 아쉬움만 가득했던 해였죠. 하지만, 비대면 활동으로 반년을 수업했던 나머지 올해는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니 제 몸이 2학년이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인생에 대한 조언을 주위에서 해주시니 제가 2학년 학생이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학교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제 선택에 후회화더라도 도전하면서 보내고 싶어요.

▶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나요?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요. 실력을 연마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노력까지 포함돼서 얻은 자격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주변에서 무시하는 것 같은 시선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뀔 때까지 정당화시키고 싶어요. 지금은 기초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서 초심을 잃지 않고, 대단한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가고 싶어요. 물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날까지 노력하고 싶어요. 올해는 꼭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같은 숫자 20이 반복되는 2020을 보면 저에게는 평범한 숫자로만 불과했고, 새로움과 즐거움을 전해받지 못했어요. 2021은 네 번째 숫자만 다른 작년과 비슷한 숫자로 0이 또 나올 거라는 예상과 실망을 안겨줄 거 같았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상과 다른 1이 나옴으로써 작년과 다른 새로운 스타트라고 의미를 담고 싶어요. 반복되는 숫자 2020에 살았으면 어떨까? 맨날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의미 없는 상황에 갇힐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1이 나오면서 삶의 행복을 찾으면서 나만의 방식대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000입니다.

올해 학교생활 어땠나요?

작년에는 2학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이라 진학에 대한 부담을 덜 느꼈어요. 그래서인지 조바심을 느낄 수 없었고, 몸도 마음도 여유롭게 다녔어요.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 반절을 비대면으로 수업했기 때문에 학교를 나간 후에는 곧 내가 3학년이라는 것이 실감이 덜 났어요. 올해 고3이 되고 취업과 진학이 갑작스럽게 실감이 났어요. 자격증을 올해 취득하려다 보니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작년에 취득할 걸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도 작년과 달리 학교를 나가니까 할 일들이 눈에 보여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 자신에게 가부를 묻고 싶어요. 알차게 보내려면 자아 성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플래너를 작성하는 습관을 나아가고 싶어요. 제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해서 오는 뿌듯함을 얻고 싶어요. 처음에는 유지되기 힘들어도 점점 견뎌내면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일목요연하게 살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2학년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면 거짓말이겠죠? 매번 바라고 기도해도 오지 않을 2학년을 너무 허투루 보내지 않았나 연신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후회를 끝없이 한다면 발전도 없고, 미래도 깜깜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끝없는 길을 나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고등학생 신입생 때의 열정으로 다시 차근차근 시작해서 3학년을 마무리 짓고 싶어요.

취 / 재 / 후 / 기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도, 생활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해나가고, 단단해지는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5명 가족, 양해 구하고 돌려보내기 일쑤

박온유 / 강호항공고등학교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다가온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뉴스의 초반 말들과 달리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고, 더욱 엄격해진 입국절차가 코로나 19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역시 신천지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여러 집단감염이 일어났으며 정부에서는 거리두기를 상향시켰다.

2월, 많은 사람들이 설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했고, 벌금을 물어서라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겠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시민들은 코로나 19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부당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고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본 인터뷰는 1.5단계 사회적거리두기의 완화 전 2월 말 진행했다

▶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세요.

저는 현재 프렌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밤 9시가 된다면 문을 닫아야한다는 정부방침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정상적인 영업시간은 오전 1시까지입니다. 즉 밤9시까지는 홀영업을 병행할 수 있다지만 오전1시까지 4시간동안은 배달로만 운영을 해야하지만 홀영업의 부재를 배달로만 메꾸기엔 힘든 실정입니다.

▶ 홀 운영에 더 어려운점이 있었을까요?

지원금이 있었지만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주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고나면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 지자체의 보상은 있었나요?

5인이상 집합금지도 어려운사항 중 하나예요 가족의 많은 단위들 중 하나는 5명인데 5명의 가족이 온다면 저는 아쉽지만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내기 일쑤입니다.

! 한편 전라북도 지역은 1.5단계로 거리두기 완화 이후 5인이상 가족모임 일부 허용조치와 영업제한 시간 해제 등 조치가 변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2주간이라는 한시적인 조치이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코로나 19

일상과 단절된 자가격리

박시온 / 강호항공고등학교

4차 유행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중인 코로나 정국이다. 뉴스로 전해 듣기만 하던 일이 나와 가족에게 일어났다.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가 시작된 것이다. 다행히 초기 코로나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 14일간 외부와 단절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우리 가족은 각자에 공간에 머물면서 따로 생활하였다.

자가격리 시작 다음 날 보건소 직원이 방문하였다. 식품 꾸러미와 여러 위생 키트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여러 주의사항과 안전 보호 앱을 설치해야 함을 안내해 주었다.

여러 가지 식품이 들어 있는 꾸러미를 제공 받았다.

체온계, 물티슈,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설치한 후에 하루에 10시, 20시 총 두 번 자가진단 해야 한다.

다음은 자가격리를 경험한 청소년의 인터뷰이다.

저에게 절대 오지 않을 자가격리가 코앞에 다가왔을 때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끝을 맺어야 할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생활하면 되지. 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머리도 아프고, 확진자와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결과가 양성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도 결과는 음성이었고, 하루 자가격리를 했지만 배움의 한 과정으로 남기기로 했어요.

!

답답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자가격리 또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여기며 자가격리 뿐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하루 빨리 끝나길 바란다.

코로나 19

코로나 블루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김혜빈 / 정읍여자고등학교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외출 시 마스크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생소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되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은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을 만들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와 우울감을 뜻하는 영어 'Blue'가 합쳐진 신조어를 뜻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항우울제 처방 환자가 전년도 대비 25% 증가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불안장애 상담 건수 역시 전년도 대비 44.8% 늘어 코로나 블루가 비단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박경자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연구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라며 "학생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체제가 시급하다"라고 했다.

다음은 코로나 블루의 증상이다. (출처: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1.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
2. 잠들기가 어렵다.
3. 불안하고 쉽게 놀라게 된다.
4.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다.
5. 원치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
6.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렵다.
7. 멍하고 혼란스럽다.
8.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9.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

※ 위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사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 물질인 엔도르핀을 분비한다. 또한 장기적인 운동은 뇌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정돈하게 한다. 일주일에 몇 번의 산책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경우 홈트레이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일관된 수면 시간표를 가지게 된다면 우울증과 수면 장애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수면일지를 써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자기 전 최소 2시간 전에 전자 장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휴대전화, 태블릿 또는 텔레비전의 푸른빛과 자극으로 인해 24시간 주기 리듬이 중단되어 잠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추가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전화번호: 063-251-0650)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심리지원 마음다온에서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지원 서비스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확산, 회복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및 심리적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심리지원 서비스로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나 화상, 이동 또는 내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정신건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검진 도구를 통한 정신건강 및 자.타해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자원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거주 지역 내 보건, 복지 자원의 탐색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지역자원서비스 연계, 정신응급 개입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연결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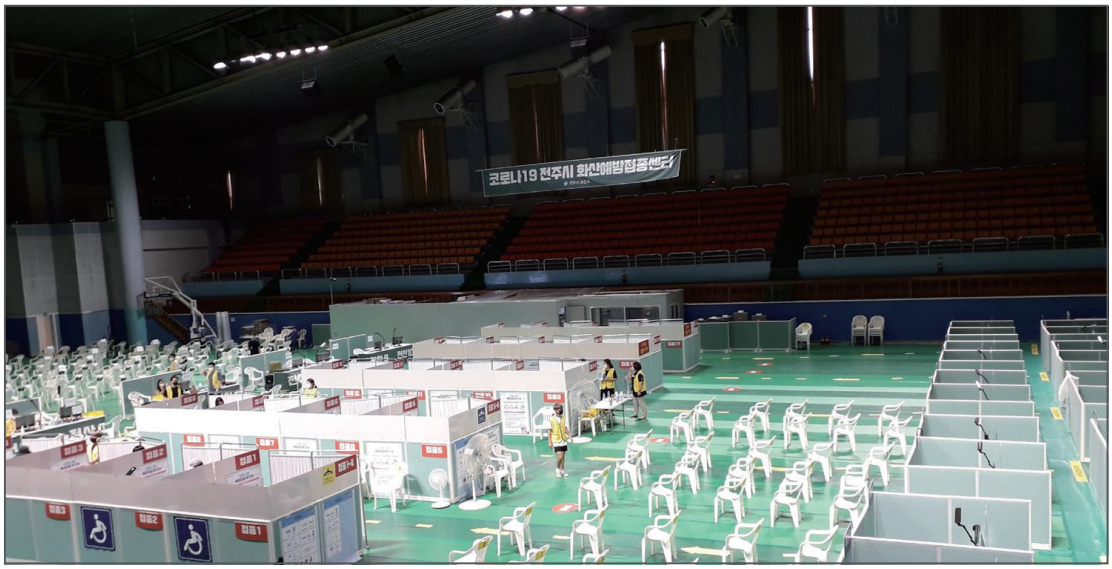
!

'위드 코로나'시대, 단순한 코로나19 방역을 넘어서 이젠 심리 방역으로 코로나 블루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

코로나 19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 고3 수험생들에게 접종

장희주 / 전주한일고등학교



▲ 화산체육관 예방접종센터

2021년 7월 19일부터 전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백신은 '화이자'이며 학교는 가나다순으로 일정을 나누어 선생님들과 함께 백신 예방 접종을 진행한다. 필자의 학교인 한일고등학교는 7월 29일 13:00로 지정이 되어있었고 꼭 시간에 맞춰 가야 했다. 오전에 맞는 학교와 혼동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화산 체육관 안에는 임시로 칸막이를 쳐 운영본부진, 총괄진, 응급처치실, 접종실 등을 만들어 놓았으며 학생들이 속속히 맞춰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많은 안내원들이 배치 되어있었다.

처음에 화산체육관 본관의 입구 쪽으로 가면 안내원들이 번호표를 뽑게 한 뒤 안쪽으로 들여보내 준다. 열을 재는 화상 카메라 앞에서 손 소독을 하고 지나 왼쪽 객석으로 올라가 대기한다. 그리고 총괄진에서 10명씩 번호를 부르면 그 번호에 맞게 다시 밖으로 나가 접수를 하게 되는데, 번호판에 자신의 번호가 뜨는 창구로 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그때 필요한 것들은 접종 시 동의서와 예진표, 주민등록증 총 3장을 꼭 필수지참 해야 한다. 동의서와 예진표는 꼭 보호자와 함께 작성해야 한다. 그 외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는 행정실에서 준비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대신 청소년증, 여권도 가능하다.

그 이후 접수가 완료 되면 예진표를 들고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 중앙 안내실에서 건강 상태와 열 체크를 하고 오른쪽으로 올라가 거리두기 좌석에 안내원들의 말에 따라 한 줄씩 꽉꽉 채워 앉는다. 주사를 맞기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난 것이다.

이후 안내원들의 말에 따라 한줄 씩 내려가서 오른쪽 총괄진 앞에서 대기를 하는 의자에 앉아 대기를 한다. 주사를 맞기 위한 정식적인 첫 번째 과정이 이제 시작된다. 예진 창구에서는 알레르기 유무를 물은 뒤 코로나 예방접종 후 안내 설명을 해주시는데, 접종 후 냉찜질이나 해열진통제 복용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권장하며(타이레놀이 대표적이며 어지러움이 심하면 두 알정도 권장을 한다.), 호흡곤란, 심한 붓기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다면 응급실을 가야한다는 간단한 것들을 알려주신다.

이후 접종실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칸막이 안에 들어가 접종을 하게 된다. 접종해주시는 간호사 분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고 접종은 아주 작은 주사기로 따끔한 정도인데, 화이자 소량을 접종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오른쪽과 왼쪽 팔 중 어느 곳에 맞을지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예진표와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백신 예방 접종 내역 확인서를 발급 해준다.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것으로 다음 접종 시 지참해야하는 종이이다. 휴대폰으로는 다음 접종 예방일자와 시간, 주의할 점을 지시해준다. 그 이후 15분~30분간 의자에 앉아 대기를 한 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구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속이 매스껍거나 어지러움, 헛구역질, 열이 나는 증상이 있다면 옆 응급처치실에서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받고 쉴 수 있는 침대도 마련되어있다.

화이자는 핵산백신 (mRNA) 이며 접종 횟수는 2회, 접종 간격은 21일 정도 된다. 청소년들이 처음 맞는 백신이라 이리저리 떠도는 소문과 많은 부작용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아직 부작용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접종부위 통증 외 부작용이 심할 경우 아나팔락시스(쇼크, 호흡곤란, 의식 소실, 입술 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동반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며 열과 구토 증상 등은 타이레놀 섭취 후 충분히 쉬면 낫는다고 한다. 귀가 후 3시간 정도는 주의 하고 최소 3일간은 운동과 격한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한다. 접종 부위 청결하게 접종 당일에는 아예 물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을 겪은 청소년들은 백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할까? 백신을 접종했던 몇몇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았다. 공통적으로 백신 접종 전에 걱정되는 부분이나 생각들, 백신을 맞고 난 후에 가장 기대되는 효과를 물었다.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백신을 맞았더니 한층 가벼운 마음이고 주의하던 마음이 살짝 풀어진다.'

'부작용 걱정은 없었지만 몸이 힘들다는 소문에 의해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까 걱정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많이 아프다는 소식에 떨면서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 같았다.'

'먼저 백신을 맞은 친구들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백신을 맞았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를 잘 쓰고 이곳저곳 너무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프다는 소식과 함께 접종을 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고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었다. 2차 접종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마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5인 이상도 허용된다는 백신의 자유를 조금 누리는 거 같아서 기쁘다.' 등 청소년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전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한마디에는 공통적으로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1차 화이자 접종은 별로 아프지 않고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뒤의 통증은 따라올지 몰라도 상상하는 그 이상의 아픔은 아니라는 소리이다. 그러니 부작용과 여러 잡지식들은 떨쳐내고 편한 마음가짐으로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1시간 정도의 여유를 두고 가야하며, 선풍기나 물 등 마실 액체를 가지고 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언급됐다.

우리 청소년들에겐 백신이란 하나의 두려움과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를 잘 그려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양면성을 가진 하나의 매개체로 인식이 된다. 고등학교 3학년에게 수능에 맞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백신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걱정들과 짐들을 덜어주고 수험생활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 백신을 접종한 청소년들이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코로나를 극복해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코로나 19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

최유나 / 강호항공고등학교

최근 코로나19는 현대 사회에 빠지지 않는 팬데믹 현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현재 2021년 11월 21일 백신 접종 현황은 완전 접종은 모든 시도에서 77% 이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국내, 해외 신규 합계 3,12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21년 11월 1일 최종 해결방안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코로나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일상회복할 것을 발표했다. 총 6주 간격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방안은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2021년 7월부터 방역을 해제했다고 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는 방역 전환 준비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단계적, 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 추진을 말한다.

1차 개편으로 변경된 사항은 코로나 식당 영업시간(카페포함)은 24시까지 가능한다. 또한 인원 제한은 사적모임 제한 해제, 1차, 2차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으로 제한 된다. 3차에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 된다. 그리고 행사 집회 또한 변경됐다. 1차, 2차에는 100명 미만 행사 가능, 결혼식 박람회 경우 개별 수칙 가능, 2차, 3차에는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도 가능하다. 또한 학교 등교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 시행이 이루어진다. 유치원 또한 놀이활동, 신체활동을 진행한다. 초, 중, 고, 토의토론, 모둠 활동 수업 진행, 소규모 체험학습까지 가능해졌다.

이러한 위드코로나 방안으로 코로나 19가 없는 시대, 전과 같은 개방적인 사회의 활기가 불어오고 있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해봤다.

Q. 위드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점이 있나요? 또한 위드코로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주세요.

강호항공고 김민재 청소년 인터뷰

늦은 저녁 까지도 모임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들게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또한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데 경기 내에서 응원 소리가 들리니 경기에 몰입할 수 있었고, 활기를 불어준 것 같아요.

전북여고 유채은 청소년 인터뷰

저는 우선 청소년에 대해서 크게 달라질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는 성인 분들이 있는 술집, 노래방 등은 더 빠르게 코로나가 퍼질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생각합니다.

완주고 최호연 청소년 인터뷰

저는 위드코로나에 대해 전면 등교, 온라인 수업 뿐이 달라지는 점이라 생각하고 달라지는 점이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유치원, 초등학생에게는 모둠 수업, 여러 활동이 진행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선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각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코로나 19 사태의 심각성을 깨우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위드코로나의 해결 방안 의도는 좋지만, 더큰 위기가 다가왔을때의 대책 방안도 필요한 것 같다.

비상기자단 8기, 하고 싶은 말

기자단 출범식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1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니, 모두가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활동하게 되어 기자단 청소년들을 만나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꾸준하게 노력해왔다는 사실은 변함없기에 뿌듯한 마음으로 기자단의 마침표인 소감문을 작성해 보려 한다. 올해 작성한 기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를 꼽자면 코로나 블루에 대해 작성한 기사를 이야기하고 싶다. 기자단으로서 처음으로 작성한 기사이기도 하고, 시국에 맞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담았기에 가장 인상적이었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새롭게 생긴 신조어가 '코로나 블루'이다. 코로나 블루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해 보고 이에 따라 기사를 작성했는데,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제약들을 마주할 때면 '코로나만 없었더라면...'이라는 상상을 하곤 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수학여행이 취소되었을 땐 더더욱 그랬다.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작성한 기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대처법을 인지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랐다. 누군가가 기사를 보고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쁠 것 같다. 첫 기자단 활동이었던 만큼 의욕이 앞섰던 활동이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 취재를 나가보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청소년의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써 볼 수 있어 의미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올 한 해 기자단을 열심히 이끌어주신 이정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17살 김혜빈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기자단 활동을 발판으로 끊임없이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뽑으라고 한다면 '비상 기자단' 활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인생 첫 청소년 활동이기도 했고, 이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는 것을 즐겼던 나에게 기자단 활동은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다. 직접 기사를 써서 신문에 내 이름으로 된 기사를 싣는 경험은 돈 주고도 못 구할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또한 '비상 기자단' 활동 중 정기회의 시간은 내가 기사를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매달 기사를 쓰고, 줌으로 기자단원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은 내 기사에 대한 피드백은 물론 앞으로 쓰게 될 기사 주제에 대한 기자단원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적도 많았다. 처음에 호기롭게 시작한 이 활동이 시험기간이 되자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매달 정기회의를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또한 힘들게 기획한 캠페인이 청소년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여 기자단에게 아픔이 되었다. 비상 기자단 임기가 끝나갈수록 처음 기자단 활동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난다. 첫 기사를 쓰던 날, 누구보다 잘 쓰기 위해 기사를 고치고 또 고쳤던 게 기억난다. 내 첫 기사가 신문에 실렸을 때 내 가족은 물론 친구들에게까지 자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또한 내 기사가 신문에 실리자 사람들이 나의 기사를 읽으며 어떤 생각을 할지, 또 내 기사에 오류는 없는지 설렘과 걱정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던 것 같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기자단 활동이 눈 깜짝할 새에 끝나가고 있다는 현실에 매우 슬프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하다. 또 부기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비상 기자단'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끝으로 올해 '비상 기자단'을 담당하시느라 애쓰신 이정선 선생님과 일 년 동안 함께 활동을 한 기자단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비상기자단 7기와 8기를 참여해 본 결과 너무나 만족한 활동이었다. 자신감과 소통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큰 강점으로 뽑고 싶다. 나는 이미 7기 활동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용기 내서 8기 기장을 맡았다. 역시 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할까? 처음에는 부담이 많이 됐다. 솔선수범하여 기사를 먼저 제출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주제도 급하게 정해 만족하지 못한 기사를 제출하였다. 이런 나를 원망하고 다시 차근차근히 해보자는 마인드로 주제부터 신중하게 고민하고 종류 또한 고심해서 결정했던 게 기억이 남았다. 다행히도 점점 나아졌고 그 기사 또한 새전북신문에 올라가서 자랑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기장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읽은 내 친구가 나한테 "진짜 멋지고 내가 너랑 친구인 것이 너무 뿌듯하다."라고 말해줬을 때 그 감정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말로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활동하면서 감사하게도 우수 청소년기자로 선발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았던 기억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동안 해온 일을 치유할 수 있었던 상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상을 나 혼자만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닌 다른 청소년 기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주셔서 받을 수 있었던 상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다.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 19로 제한된 부분이 너무 많았다. 매번 화상회의로 진행돼서 청소년들끼리 친해질 기회가 부족했고, 비상기자단에 대해 널리 알릴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게 크나큰 약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에게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된 청소년비상기자단, 내년에도 기회가 온다면 다시 참여할 거냐고 묻는다면 나는 무조건 참여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고 싶다.

기자단에 지원하기 전에는 많은 걱정들이 앞섰다.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건 더욱 싫었기에 나는 기자단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기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나는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갔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하고, 많은 기사들을 작성하면서 배워나갔던 점이 많았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는 등의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경험하기 힘든 귀중한 시간들을 보냈다. 기자단 활동 초반에는 어려움도 분명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동시에 실제로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바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약 1년간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기자단이 아니었다면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것들이 매우 많아서 만약 내가 기자단에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후회했을 것만 같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들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1년동안 정말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과 나와 함께 기자단 활동을 했던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기자단 활동을 위해 열심히 힘써주신 분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값진 경험을 받아가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자단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기자단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자단에 지원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여러분에게 다시는 쉽게 찾아오지 않을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어떤 주제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을 내야할지 정말 막막했다.. 하지만 몇 번 쓰다 보니 적응도 되고 대충 감이 잡혔다.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야할지 보단 어떤 주제로 써야할지 정하기가 가장 힘들었다. 또, 항상 스스로 쓴 기사를 볼 때 의심이 들었다.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볼까?, 어디에 사진을 넣어야 하지?' 이런 사소한 점까지도 신경 쓰이고 고치고 싶었다.. 그렇다고 고치면 더 이상하고 그래서 그런 순간이 너무 힘들기도 했다. 1년 동안 많은 기사를 써보진 못했지만 적은 양이라도 한 편의 기사 작성을 마칠 때마다 뿌듯하고 정말 기뻤다. 또, 내가 쓴 기사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설렜다. 전라북도청소년비상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직접 기사를 작성해보니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꼈다. 또, 기자단 활동을 통해 글솜씨가 많이 늘고 많은 단어를 찾아 어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의 기사들을 보면 인격을 무시하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들이 종종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 기사는 청소년들의 순수한 마음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이다보니 청소년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분 좋게 선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는 점이 참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기사를 작성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선한 영향을 끼치는 청소년 기자로 성장하고 싶다. 전라북도청소년비상기자단 파이팅!

비상기자단을 하면서 기자단 멤버들과 소통을 많이 못한 것이 많이 아쉬웠다. 코로나만 아니면 선배들과 친구들, 후배들과 얼굴을 보면서 친목도 쌓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 모여 소통하다보니 많이 친해지지 못해서 아쉬웠다. 또 기사를 쓰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기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매일 기사를 쓰면서 깨닫게 된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기사를 보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고 '머리에서 이런주제가 나오다니.' 하면서 감탄하게 된다. 비상기자단에 들어오면서 '기자' 라는 이름을 달고 선생님, 친구, 선배들과 기사를 공유하면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보지 못했지만 기사로 소통할 수 있어서 기뻤다.

기자란 뭘까? 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왔다. 많은 정보와 직접 글을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해준다는 기자의 일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가 되고 싶었고, 꿈에 나아가기 위해 비상기자단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자란 무엇일까, 그리고 기사는 어떻게 써야하는 걸까와 같은 물음에 대답하기 위함이었다. 단순히 기회와 호기심으로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기사를 쓰고 글이 인터넷 상으로 올라옴에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청소년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글을 쓰려 했습니다. 날 것 그대로 기사를 쓰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해야 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문제, 청소년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어주는 것도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써보고, 고쳐 써보면서 기자로서 지켜야 할 비판능력과 정보능력, 리터러시와 같은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함을 알게 되었다. 글의 모든 면에서 하나의 기사를 만들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꼼꼼해야 하고, 계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적용시키고, 저희가 함께 노력했던 순간까지도 소중해지는 기분이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의 아이디어를 들어주고 미디어로 홍보하며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이 재밌었다. 다음 청소년기자들이 어떤 기사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게 될지는 예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조차 청소년이고, 남보다는 더 다른 도전정신이 우리 청소년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자란 언제든 정보를 전해주고 싶은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다. 기사를 쓰며 기자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릴 수 있는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3월

김의숙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지도자 칼럼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활동

필자가 중학교 시절, 도덕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머릿속 한 가운데에 또렷이 자리해 있다. "바다에 빠졌는데 집채만 한 파도가 밀려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신 선생님께서는 이어 2개의 선택지를 제시하셨다. "바다 위로 올라와 파도에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바닷 속으로 잠수해 파도를 모면할 것인가?" 팩트 체크를 통해 입증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정답은 바다 위로 올라와 파도를 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도 가끔씩 선생님의 말이 곱씹어지는 것을 보면 필자 역시 어려움을 마주칠 때마다 바다 아래로 잠수해 파도를 피해보고자 하는 나약함이 종종 찾아들었음을 고백한다.

'코로나19' 속에 청소년활동 현장 역시 직격탄을 피해 가지 못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휴관과 개관을 반복했고, 그때마다 청소년지도자들은 '시설 개관 홍보'와 '휴관' 이라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야 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코로나19'의 그래프 속에서도 동아리활동, 각종 참여활동,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이라는 삼박자의 조율을 연출해 낸 청소년지도자들을 향해 진심을 담아 박수를 보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면 과제로 떠오르는 것은 기존 '오프라인 활동'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프로그램을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오프라인' 활동 속에 담겨있던 청소년활동의 당초 취지와 효과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비대면 활동'의 첫 시작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회의 운영과 체험키트 프로그램이었다. 일 년여가 지난 지금, 청소년활동 현장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적은 수의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활동 전환을 꾀하고 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은 청소년지도자들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단번에 넘버 원으로 뛰어올랐다.

아직은 어색하고 낯선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일은 쉽지만은 않다. 온라인으로 처음 만날 때 관계 형성도 쉽지 않고, 화면으로 내 의견과 생각이 어떻게 전달될까 계속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 역시 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디지털에 친밀할 뿐 쌍방향 소통과 관계가 중요한 온라인활동이 쉽지만은 않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작년 17개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진행한 '온라인 청소년활동 실태조사'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주었다. 전국 청소년응답자 2,800여 명은 온라인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에 77.3%가 공감하였고, 온라인 청소년활동을 통해 여가 시간 활용과 새로운 관심 분야 발견, 친구와 소통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 창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간 오프라인 청소년활동의 필요성과 장점으로 거론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자기계발 활동과 문화예술활동, 진로탐구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고, 여자 청 소년은 문화예술활동을, 남자 청소년은 건강스포츠활동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비대면활동이 대면활동을 뛰어넘지 못할 것 이라는 우려는 온라인활동을 기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 논쟁거리로 붙잡아 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이젠 온라인에서도 더 잘 구현해 내야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피해갈 수 없는 당위의 문제인 것이다.

다시 중학교 도덕선생님의 선택지가 앞에 놓여 있다. '코로나 19'라는 집채만 한 파도를 앞에 둔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소년응답자 2,800여 명은 온라인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에 77.3%가 공감하였고, 온라인 청소년활동을 통해 여가 시간 활용과 새로운 관심 분야 발견, 친구와 소통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 창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간 오프라인 청소년활동의 필요성과 장점으로 거론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자기계발 활동과 문화예술활동, 진로탐구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은 문화예술활동을, 남자 청소년은 건강스포츠활동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비대면활동이 대면활동을 뛰어넘지 못할 것 이라는 우려는 온라인활동을 기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 논쟁거리로 붙잡아 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이젠 온라인에서도 더 잘 구현해 내야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피해갈 수 없는 당위의 문제인 것이다.

다시 중학교 도덕선생님의 선택지가 앞에 놓여 있다. '코로나 19'라는 집채만 한 파도를 앞에 둔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4월

이태훈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도자 칼럼

청소년활동, 코로나19를 기회로 뉴노멀시대로 나아갈 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 일시적인 변화로만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들은 점점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기임을 인정하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회 정책들로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지원금이 그렇고, 각종 바우처들이 그렇다. 이런 정책들은 수년 전만 하더라도 어색한 이야기들이었지만 현재는 받아들이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이것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이 익숙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큰 변화들은 공공부분의 지원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현재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책이 재구조화가 되는 시기라 한다면, 다른 사회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청소년 정책은 더욱 빠른 변화, 그리고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현재의 청소년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실감하며,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9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사교육 이용률은 1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지만 1인당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고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족 청소년들은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에게 소외되어, 사회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부분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들은 휴관을 반복하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곳들은 폐업을 한 곳도 있을만큼 청소년 활동 현장은 매우 열악하다.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정책대상자들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에게 돌아간다. 자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온라인과 디지털에 민감한 소위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라 불리는 청소년들에게 사회 정책의 재구조화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되었다.

2020년 5월 뉴욕타임스에 베로니크 민츠라는 한 청소년이 글을 기고했다. I'm Learning More With Distance Learning Than I Do in School (나는 학교에 있는 것보다 원격학습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라는 글이다. 이 기고문을 통해 베로니크 민츠는 원격수업을 통해 학교에서보다 더 많이, 더 쉽게 배울 수 있고 나를 방해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없어 더욱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환경을 경험한 일선 교사나 청소년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성적이고 수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누군가는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보다 더욱 효율적인 활동 효과를 누릴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한다.

물론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의 장단점은 존재하겠지만 작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콘텐츠가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이냐, 아니냐일 것이다. 전 세계의 움직임을 꽁꽁 틀어막은 코로나19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커다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현장의 지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현상의 변화를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선행학습으로 청소년 활동 현장의 방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적어도 비대면 청소년 활동이 실제로 청소년활동의 주요 방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객관화된 사실이다.

청소년활동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전제된다면 활동의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대면 활동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본질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며, 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과거를 거울삼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래를 모색하며 우리 삶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 바로 뉴노멀 시대에 청소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5월

이정선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도자 칼럼

가스라이팅의 시대, 안전 장치로 기능하는 청소년활동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활동 및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근무하는 필자는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해로부터 '청소년 활동'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어보고자 한다.

심리학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적 용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물리적 학대보다 더욱 교묘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폭력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워 더욱 위험한 정서적 학대의 일종이다. 다행스럽게도 이처럼 추상적인 현상을 용어로 정의하고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현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가스라이팅이 비단 연인, 가족, 직장과 같이 개인과 개인 사이, 또는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관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바로 우리 사회는 정해진 규범에 따라 의심 없이 타자의 삶을 살게 하여 공허감과 불행함을 느끼게 하고, 각자의 개성 있는 삶을 스스로 의심하도록 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시대'라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겪는다.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을 타인의 평가나 조언 한마디에 의심하기도 하고, 입시, 취업, 결혼, 출산, 부의 축적을 위해 정신없이 달리다가 뒤늦게 나는 누구이며,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기도 한다. 심각할 경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을 부정하며 우울, 자살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노동, 성,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적 안전 장치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인이 스스로 자신만의 삶의 의미에 대해 통찰하여 내면을 단단히 할 안전 장치는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는 우리를 얕은 바람에도 뿌리가 흔들리는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20세기 사상가이자 정신 의학자인 빅터프랭클의 에세이 '빅터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둘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셋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거나 받아들임으로써.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이 첫째,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하며. 둘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사람을 만나며. 셋째,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하여. 삶에 있어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주관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치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등의 활동'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청소년활동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착한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불행을 부추기는 가스라이팅의 시대에서 청소년이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안전 장치로 그 기능을 이해하고,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야만 개인 과 사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박주희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도자 칼럼

방과 후 뭐하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들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바꿔 놓았다.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원격수업과 온라인 개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학생과 교사가 학교에서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당했다.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뒤에도 전면적인 원격수업은 교사나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생소한 경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학습 손실과 청소년들의 사회성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5에 근거하고,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자체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 청소년 지원 사업이다.

즉,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을 제공하는 종합서비스로, 청소년 활동 · 복지 · 보호 · 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 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새로 개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곳까지 포함하여 총12개 지역에서 21곳이 운영 중에 있다.

코로나19와 초 · 중등교육의 이슈에 관한 논문에서 원격수업의 단점으로 초등학생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걱정을 표하고, 중학생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등을 자주 이용하는 것'에 우려가 된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생활이 줄어든 요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이다.

한편 도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협의회 간담회에서 실무자들의 고민거리는 이용 청소년들의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 모집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물며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청소년 모집 홍보에 대한 문제는 더 많은 불편함을 토로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자체, 청소년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 할 때다.

덧붙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과 청소년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다.

7월

강다연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도자 칼럼

차별의 사각지대, 청소년의 목소리

'내 삶은 정말 차별과 상관없는가?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성찰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지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시야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견할 기회이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내용 中)' 필자는 최근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읽으며 성별, 다문화 사회, 소수자 등 다양한 대상이 겪는 차별사회, 불평등한 시작을 만들어 내는 사회 속에서 내가 서있는 위치에 따라 당연하게 느끼는 편리함과 불편함의 차이를 공감할 수 있었다.

청소년 시기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친구들 무리에 속하기 위해,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내 우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 친구, 학교, 직장 등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즉 '주류'에 속하기 위해 노력하며 혹여나 소속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왔다. '주류'일 때 당연한 옳음의 기준이 '비주류'일 때의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필자가 경험한 차별이었다. 하지만 이 차별 또한 나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로, 사각지대에 놓인 차별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필자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에 대해 다시 한 번 떠올려보았다. 코로나19 초기 미성년 청소년은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다.(많은 사람들의 제안으로 빠르게 청소년증이 포함되었다). 도시와 외곽 지역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화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아직도 '학생'이라는 사회의 기준으로 여전히 '청소년'에서 배제되고는 한다. 만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구성원 중에 청소년은 없다.

미성년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야만 하나? 도시 외곽 지역 청소년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지 않아도 만족스러울까?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설명해야만 하나?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은 아직도 미성숙한 존재일까? 청소년은 주민으로 결정할 권리가 없을까?

이처럼 청소년을 둘러싼 차별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며 자신의 의견을 사회로 전달하는 것, 그 하나의 방법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 자치권 확대) 근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나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참여기구이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안하는 사회참여활동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차별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필요한 활동이 아닐까?

또한, 우리는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과연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청소년 차별과 상관없는가?'

8월

이지연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도자 칼럼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책은 어디에 있는 걸까

얼마 전 뉴스에서 한 대권 주자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여성 관련 업무는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기에 따로 여성가족부를 둘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대한 분장까지 마친 듯했다.
한데, 그 어디에도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는 보이질 않는다.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정책 업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걸까? 아니면 청소년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빼놓은 걸까?
대권 주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뉴스에 대응이라도 하듯이 여성가족부에서는 장관 이름으로 성명서를 냈는데, 이 성명서에는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는데, 이 성명서에서도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청소년의 육성 · 복지 및 보호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만9세 이상 24세 이하) 2020년 기준 854만 2천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6.5%를 차지한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에는 809여 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을 보유한 청소년 지도사는 현재 5만 5천여 명이 배출되어 전국에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대권주자의 공약, 그리고 성명서의 내용으로 보면 854만 2천여 명의 청소년 인구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5만 5천여 명의 지도사(청소년활동 업무를 지원하는 지도자는 더욱 더 많을 것이다.)들을 위한 정책 또한 없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보배입니다.

많은 들어 보았듯이,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슬로건들이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대권에 도전하는 주자도 현재 청소년 정책의 총책임자도 우리나라의 보배이자 희망인 청소년은 잊은 듯하다.

9월

김진재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도자 칼럼

자기주도 성장 프로그램, 청소년 포상제

코로나 확산과 함께 청소년들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등교를 하지 않는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었다.

비대면 수업은 청소년들에게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가져왔다. 그 중 하나가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다.

코로나 이전에도 청소년 간의 교육 격차는 존재해왔다. 특히, 소득 격차별로 사교육이 증가하며 학습 능력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지금도 이 현상은 계속되지만 최근 들어 교육 격차가 증가하는 다른 이유가 나타났다. 바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다.

2020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진행한 교사 대상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의 교육 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9.0%로 높게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차이(64.92%)'를 들고 있다.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학습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되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청소년 포상제'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청소년 포상제는 청소년들이 개인의 관심사, 흥미, 목표를 스스로 탐색하여 4가지 활동 영역(봉사활동,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활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만9세~13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만13세~24세)로 나눠서 참여할 수 있다.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활동 방법을 정하여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달성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며 자기주도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비대면 교육 상황에 청소년의 교육 격차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야하고, 청소년 포상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0월

육성룡
진안군청소년수련관

지도자 칼럼

청소년 기본수당으로 청소년의 바른 성장 환경을 만들자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해 성장해야 할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인해 청소년활동에 참여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수당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시급하다.

진안지역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 40%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수치는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0년 청소년 백서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의 조사에서 보고된 수치보다 4배정도 많다. 아르바이트 시간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진행하는 동아리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설문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청소년들이 받는 평균 월 급여는 10~30만원, 50만원 이상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번 설문결과를 요약해보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주로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활동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수당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소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본소득을 시험하여 효과를 연구하는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득을 준다는 개념은 여전히 전통적인 경제관념에서 부정적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노인수당 등 수당 개념의 유사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수당개념의 기본소득에 대해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광역 및 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아 본 경험이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기본소득 또한 현재 시스템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점차 정책적으로 기본소득이나 다양한 복지체계가 강화되는 것에 맞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의 5원칙은 무조건성, 보편성, 정기성, 개별성, 충분성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청소년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지급해야 한다는 보편성에서 청소년이라는 연령에 한정해야 하는 점에서 원칙을 따르지 못하고 있고, 충분성에서 기본소득 지급이 청소년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따르지 못하는 점이 있다.

전국적으로 이미 학교밖청소년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지차체가 많아지고 있고 경남 고성군에서는 청소년수당을 0~18세까지 누구나 지급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도 김제시에서 만 16~18세 청소년에게 월 5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김제시 청소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당을 주장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복지의 확대, 저출생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청소년시기에 올바른 성장에 필요한 진로, 문화, 교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다.

11월

김윤근
익산시청소년수련관장

지도자 칼럼

더 기본에 충실한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예비 지도자'이다. '한 나라와 그 민족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청소년들에 달려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정부도 지금까지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2018~2022)"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평가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2022년 말경에는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본에 더 충실하며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을 다 같이 고민하며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기본에 충실한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올바른 세계관(世界觀)'이다.

세계관은 안경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듯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세계관의 핵심 중 하나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이다. 청소년들이 하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각자를 향한 하늘의 뜻을 알아차리며 주위의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주변의 신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도와주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정책이 담겨졌으면 한다.

둘째, '올바른 역사의식(歷史意識)'이다.

얼마 전, 언론에서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에 아는지 대해 물었을 때 '신사숙녀' 할 때의 그 신사로 대답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잔재해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이 비일비재하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와 세계사를 통찰력 있게 배워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강대국들과 주변국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또다시 당할 수밖에 없다. 단채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다. 입시 위주의 암기식 역사교육이 아닌,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세워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인문학동아리'와 '역사체험 동아리' 등 '청소년 1인 1동아리 갖기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으면 한다.

셋째, '과학적 사고능력(思考能力)'이다.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과학적 사고능력은 '끊임없는 회의(懷疑)'를 통해 '진리(眞理)에 대해 다가서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또한 '그러한가?...'의 태도로 실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체계성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위대한 발견과 발명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세시대까지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다. 갈릴레이는 "과연 그러한가?" 하고 의심하고 검증한 끝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지동설'을 과학이론으로 밝혀냈다. 과학적 사고능력은 사실(fact)에 근거한다. 이러한 과학적 사고능력을 가진 청소년들이 일반화 되어질 때 '제2의 갈릴레이와 에디슨'이 대한민국에서도 배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재능계발(才能戒發)'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입시지옥 환경에 갇혀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입시공부에 목숨 걸고 있다는 현실이다. 청소년 개개인의 재능과 소질을 찾아 계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제공해 줘야 한다. 4차 산업시대를 넘어 5차, 6차 산업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전문성을 준비하게 해야 한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다는 '직업 소명설'을 말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은 교사와 공무원에 몰리고 있다. 누군가는 IT전문가로, 누군가는 사회복지사와 상담사의 비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현대인의 직업은 수만개라고 한다. 이제 정부와 청소년계는 청소년 개개인이 소질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계, 청소년계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업(協業)해야 한다.

청소년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예비 지도자'임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세계관의 토대 위에 바른 역사의식과 과학적 사고를 학습(學習)하고 청소년 개개인의 재능계발을 통한 분명한 직업적 소명이 담긴 기본에 충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립해 가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와 산하 청소년 기관이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疏通)하며 지자체와 교육계, 청소년 기관 단체가 하나가 되어 포스트 코로나 위기 상황임을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업(協業)해 갈 때 가능할 것이다.

12월

김광훈
진안군청소년수련관

지도자 칼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청소년활동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 온 숲이 필요하듯이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과 지역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숲에서 균형 있게 자란 나무가 다시 숲을 무성하게 만들 듯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란 청소년은 다시 지역을 살린다.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이 사회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역 내 학교, 청소년수련시설이 온 힘을 다해 사회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 청소년프로그램은 학교와 학교 밖의 활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이는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요즘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만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활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를 포함한 교육 관련 정책이 해가 지날수록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전에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꿈꾸고, 찾는, 청소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학교 밖 활동이 대학 진학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크게 줄었다. 청소년들의 활동과 참여는 교육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대학 진학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잖아도 바쁜 학교생활에 굳이 학교 밖 활동을 더하고 싶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 밖 활동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심어줄 수 있다. 자신의 진로를 위한 동기 부여를 할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성장해 나갈 수도 있으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푸는 등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와 연합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참여 의지를 심어주고 활동을 보조해주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 밖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 외에 청소년들의 삶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학교 밖의 삶 또한 그들의 모습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은 3년 전부터 지역의 중학교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와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역사회 인력풀을 활용해 강사들을 모집하거나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강사가 되어 청소년들과 프로그램을 함께한다. 무언가를 지시하기 보다는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등 청소년들의 학업과 진로를 응원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이 협력하여 만들어 낸 결과이다.

그동안에 지역사회가 학교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은 장학금 전달이나 학비 보조, 통학의 편의 제공 같은 간접적인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진로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일에 나설 수 있고, 그런 과정은 각급 학교의 학사운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심화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사회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의 의미를 찾고 기획, 준비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이 되어야 청소년들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자리 잡고 성장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청소년을 건강하게 육성하는데 힘을 합치기를 소망한다.

전라북도청소년비상기자단 협력기관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020년부터 청소년자치연구소, 새전북신문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기사를 실제 신문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블로그, SNS 등 온라인 배포를 해왔던
청소년 기사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새전북신문

전라북도 지역 일간지로 지역 현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전문가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ww.sjbnews.com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
063-230-5700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지역사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고, 긍정적 변화를 일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www.youthauto.net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
063-465-8871

더 많은 **기사와 정보**는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jb0479.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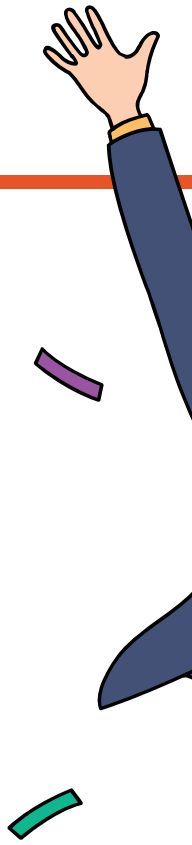
블로그
blog.naver.com/
youth0479

카카오채널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페이스북
www.facebook.com/
jb0479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
jb_youth

전라북도 청소년포상제



PART 2

청소년포상제

청소년포상제의 역사

독일의 교육학자인 쿠르트 한(Dr. Kurt Hahn) 박사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한 학교에서 운영하던 모레이 배지 프로그램(포상제의 전신이 된 프로그램으로 당시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에딘버러 공(The Duke of Edinburgh)이 활동을 경험하고 착안해 청소년들에게 교과학습 외적인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에딘버러 공과 다시 만나게 된 한 박사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고 세계최초 에베레스트 등반대의 대장인 영국의 존 헌트(John Hunt) 대장도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었다.

이렇게 에딘버러 공을 주축으로 모인 세 사람은 1956년 처음으로 영국의 청소년들에게 포상제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 시기 영국 청소년들이 참여한 포상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상제와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우선 참여가능 연령도 15~18세로 지금보다 어렸고 여자 청소년들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4년간의 다양한 시도 끝에 1980년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14~24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제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조직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초창기 영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영연방국가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포상제는 더 이상 영국만의 프로그램이 아닌 국제적인 조직을 갖췄습니다. 국제포상협회는 이렇게 확대되는 조직의 의사소통창구 기능을 소화하기 위해 1988년 공식 출범하게 되었고, 2012년 호주에서 열린 총회를 계기로 기관의 공식 명칭을 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Foundation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입회청소년		포상청소년	운영기관
연도	신규입회	계	계	계
2019	1,283	25,754	431	876
2020	577	26,331	256	919
2021. 6.	488	26,819	20	951

참여대상

구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참가대상	만14세~24세	만7세~15세(초1~중3)
활동영역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합숙(국제형 금장한정)	
포상단계	동장(6개월) 은장(6~12개월), 금장(12~18개월)	동장(16주), 은장(16~32주), 금장(24~48주)

참여 방법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접속 (www.youth.go.kr) → 입회상담 및 신청 → 활동시작 및 기록 → 심사/포상

참가 비용

국제형				자기도전형	
입회비	참가비			입회비	심사비
20,000원 (최초1회)	동장	은장	금장	30,000원 (동 · 은 · 금 동일)	20,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재심사 10,000원

참가비 면제 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다문화 가족
- 장애인
- 북한이탈자
- 법적차상위계층
- 농어촌 및 도서산간 벽지 청소년
- 포상제 특별기준

청소년과 함께합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대한민국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철학

포상제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개별적인 활동이다. 모든 개인은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포상제를 통해 참여하는 활동 역시 다양한 개성을 보여준다. 포상담당관과 포상활동지도자의 지도하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개인의 관심사, 흥미, 목표를 탐색해 4가지 활동영역의 성취목표를 세우게 된다. 성취목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도전했을 때 달성이 가능하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청소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기도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성취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극복한 것에 대한 만족감과 스스로에 대해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설정한 성취목표의 난이도다.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적정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상제는 우열을 가리는 활동이 아니다. 다만 자신이 설정한 도전적인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청소년이 성취감을 느끼는데 지름길은 없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기본 원칙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철학

- **비경쟁성(Non-Competitive)** :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스스로와의 약속
- **접근성(Available to All)** : 포상제 참여 청소년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음
- **자발성(Voluntary)** : 청소년은 스스로가 포상제 참여를 결정함
- **유연성(Flexibility)** : 자신의 관심과, 역량 등에 맞춰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참여, 선택함
- **균형성(Balanced Program)** : 봉사, 신체단련, 자기개발, 탐험 등 4가지 활동영역에 도전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균형있게 갖출 수 있음
- **단계성(Progression)** : 단계에 따라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함
- **성취 지향성(Record of Achievement)** :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아닌 활동을 하면 얻은 생각, 느낌, 성장과 같은 성취과정을 기록함
- **과정 중시성(Value of process)** : 활동을 통해 잠재적 능력과 재능을 발견하게 되며, 체험과 참여도에 따라 포상의 가치가 정해짐
- **지속성(Marathon , not a Sprint)** : 꾸준한 참여와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포상활동은 일시적인 열정으로는 완성할 수 없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장점

- 청소년단체나 기관에서 활동 가능하다.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기본적인 운영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청소년단체와 기관의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진다.
- 우열을 가르거나 순위를 매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수준과 목표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다.
- 기존의 청소년 유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청소년들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 포상제는 국가/지역의 운영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
  포상제를 도입한 국가의 청소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 포상제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고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기회,
  우수운영사례를 보유한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는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단계

금장

영역별 48주(48회) 이상 활동 | 정식탐험 3박 4일 | 만 16세 이상

은장 미보유 청소년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한 영역을 선택하여 추가로 24주 수행
*금장에 한 해 4박 5일 합숙활동 수행

은장

영역별 24주(24회) 이상 활동 | 정식탐험 2박 3일 | 만 15세 이상

동장 미보유 청소년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한 영역을 선택하여 추가로 24주 수행

동장

영역별 12주(12회) 이상 활동 | 정식탐험 1박 2일 | 만 14세 이상

참여 청소년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한 영역을 선택하여 추가로 12주 수행

- 단계별로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활동영역을 주 1회 간격, 매 회 1시간 이상씩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 탐험활동은 사전 기본교육 및 예비탐험활동이 필수이다. 예비탐험활동은 정식탐험활동의 훈련과정으로, 정식탐험활동에 준하게 활동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최소 활동 기준 이상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예비탐험활동 최소 활동기준: 1박 2일, 숙박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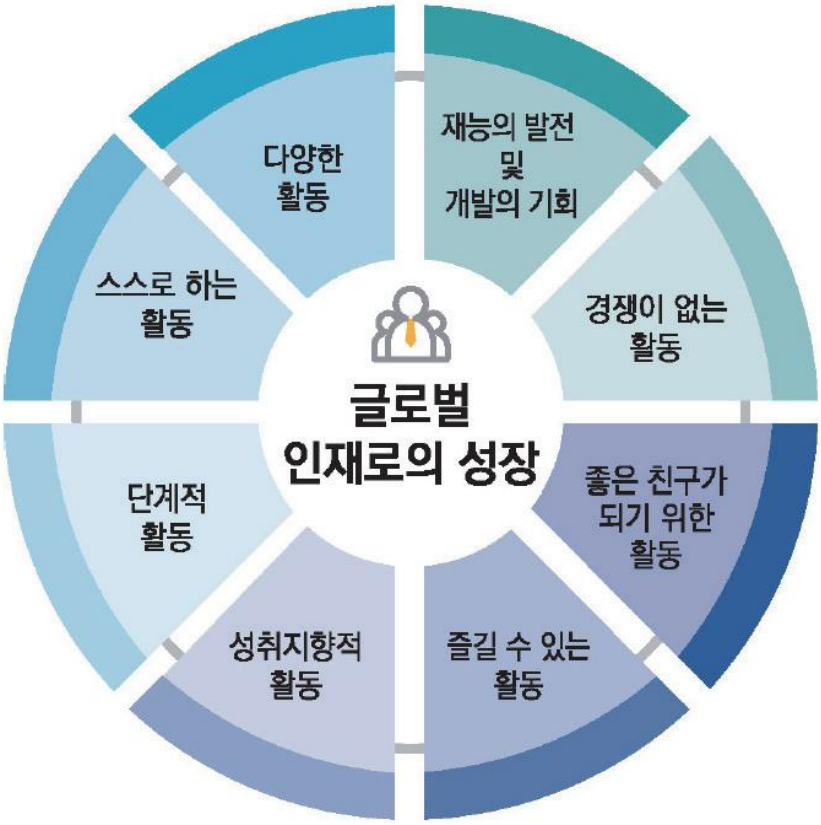
- 동장 포상자는 만 15세 미만이어도 은장 단계 참여가 가능하나, 은장 포상자는 만 16세 미만이면 금장 단계 참여가 불가능하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의 기본 철학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총 8가지 철학을 기본 바탕으로 저연령 청소년의 능력 및 소질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서 타인과 조화로운 삶의 기술을 습득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활동이 청소년 개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이 되고, 단순한 교육 및 체험활동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청소년활동으로써 효과성이 발휘되기 위하여 아래의 8가지 철학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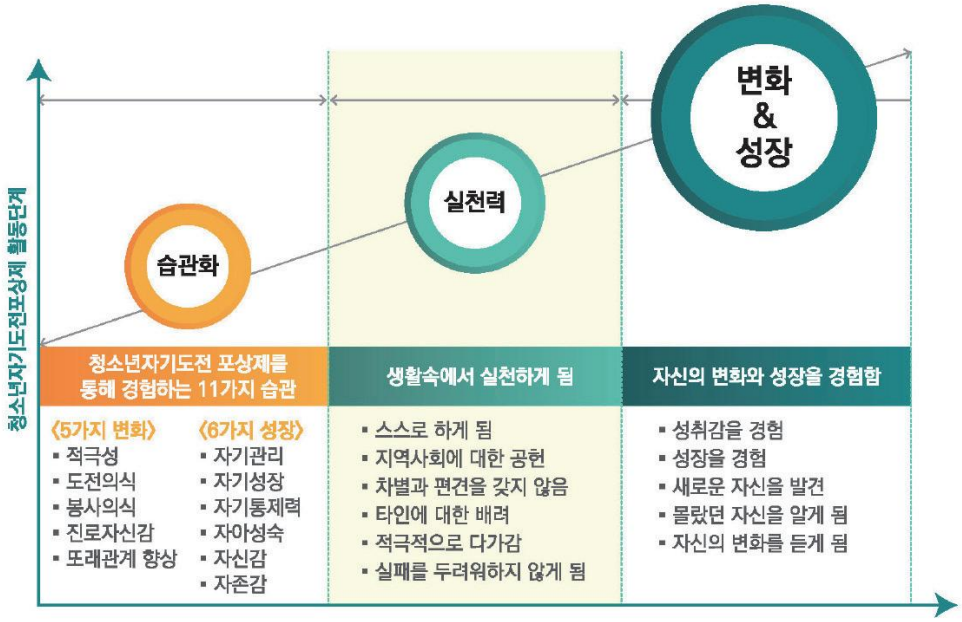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철학

- **다양한 활동(Various activities)** : 4가지의 다양한 활동을 권장함
- **스스로 하는 활동(self-activity)** : 청소년이 결정한 활동에 참여하여 완수함
- **재능의 발견 및 개발의 기회(finding and developing talents)** :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흥미나 소질을 찾음
- **단계적 활동(step by step activity)** : 동장, 은장, 금장의 3단계로 구성되어 각 활동별로 참가자의 발달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음
- **경쟁이 없는 활동(non-competitive activity)** :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
- **성취 지향적 활동(achievement-focused activity)** : 목표를 완수해 나가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요한 원동력
-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활동(activity to be a good friend)** :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 **즐길 수 있는 활동(enjoyable activity)** :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즐거움을 경험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철학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활동단계

금장

영역별 24주(24회) 이상 활동 | 탐험활동 2박 3일/15시간

은장 미보유 청소년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한 영역을 선택하여 추가로 24주 수행

은장

영역별 16주(16회) 이상 활동 | 탐험활동 1박 2일/10시간

동장 미보유 청소년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한 영역을 선택하여 추가로 16주 수행

동장

영역별 8주(8회) 이상 활동 | 탐험활동 1일/5시간

참여 청소년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한 영역을 선택하여 추가로 8주 수행

- 단계별로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활동영역을 주 1회 간격, 매 회 40분 이상씩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 탐험활동은 사전 기본교육이 필수이다. 기본교육은 탐험활동을 하기 전 탐험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 스킬을 익히는 과정이다.
- 동장 · 은장 단계는 만 7세~만13세 청소년이 참여 가능하지만, 금장 단계의 경우 신규 참여 시 만 12세 이상 청소년이 참여 가능하다.
  *은장 단계 포상자는 만 12세 이하여도 참여 가능하다.

청소년포상제의 운영기구별 역할

포상운영 사무국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시 · 도 단위에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포상센터 모집 및 심사, 결과 통보
- 포상담당관 교육 및 컨설팅
- 지역 포상식 개최
- 지역사회 중심 운영기관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운영
- 지역사회 중심 포상제 홍보 및 인력풀 구성
- 탐험활동 연계 및 청소년 활동 참여 지원 등

포상센터

4가지 활동영역의 프로그램을 참여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 시설, 단체, 법인 등

- 포상제 지역사회 운영기관 홍보 및 참여 청소년 모집
- 4가지 활동영역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계 지원
- 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승인
- 참여 청소년 포상활동 점검 및 포상 승인 요청
- 참여 청소년 포상활동 지원 및 상담
- 지역사회 운영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 활동코치 관리 및 지원

포상지도자 명칭 및 역할

- **포상 센터장** : 포상센터의 업무총괄 및 책임자
- **포상 담당관** : 포상센터에 소속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만 20세 이상, 청소년활동 경력 1년 이상인 자 포상담당관 직무연수 이수자
- **활동코치** : 만 19세 이상으로 청소년의 활동 영역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력, 전문 자격을 갖는 지도자
  ※ 한국사무국감독관, 포상운영사무국장, 포상감독관, 포상센터장, 포상담당관은 활동코치 겸직 가능

활동영역별 예시 ❶

봉사활동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거나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

구분	예시
사회적 약자 생활편의 지원	노약자 이동지원, 청결지도, 도시락 나누기, 연탄 나르기, 쿠키 나눔, 무료 급식소 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 및 자선활동	복지시설 · 공공시설 · 병원 등에서 일손돕기, 위문활동, 농 · 어촌 일손돕기, 불우이웃돕기, 재해구조, 국제협력과 난민 구호 등
환경보호 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 식목 활동, 저탄소 생활 습관화,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
안전, 공익,인권 등 캠페인 활동	공공질서, 교통 안전, 학교 주변 정화, 환경보전, 각종 편견 극복 등
재능나눔 활동	멘토링, 학습지원, 공연 등

활동영역별 예시 ❷

자기개발활동

청소년이 평소 관심이 있던 활동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 가는 활동

구분	예시
예술	뮤지컬 노래 배우기, 댄스 배우기, 악기 배우기, 공예, 문학 작품 읽고 독후감 쓰기, 서예, 건축물 모형 조립, 소설 창작 등
과학 · 정보	로봇 만들기, 과학키트 제작, 로봇기술 자격증 따기, 정보처리기술 자격증 따기, 정보 활용능력 키우기 등
환경보전	자연과 녹색발전 연구하기, 자연생태 관찰하기, 자연자원 연구하기, 텃밭 가꾸기, 천문 우주 공부하기, 유산균에 관한 연기하기, 생명공학 배워보기 등
기타	외국어 배우기, 요리 자격증 따기, 미용기술 배우기, 네일아트 자격증 따기 바둑, 보드게임, 수집활동 등

청소년포상제의 운영기구별 역할

활동영역별 예시 ⑤

신체단련활동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구분	예시
스포츠	축구, 배구, 농구, 골프, 야구, 테니스, 스쿼시, 탁구, 배드민턴, 아이스하키, 수영, 다이빙, 조정, 수중발레, 스쿠버 다이빙, 달리기, 높이뛰기, 스키, 스케이트, 스노우보드,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 택견, 권투, 레슬링, 웨이트 트레이닝, 등산, 자전거, 에어로빅, 무용, 체조, 인라인스케이팅 등
전통 놀이	제기차기, 자치기, 널뛰기, 그네뛰기 등
생활체육	걷기, 줄넘기, 기체조 등

활동영역별 예시 ④

탐험활동

청소년이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환경 속에서 스스로 세운 목표에 도전하고 성취하면서 배우고 느끼는 활동

구분	예시
탐험활동	트래킹, 등산, 자전거여행, 래프팅, 카약, 국토대장정 등
탐사활동	생태탐사, 역사 · 문화유적탐사, 선사유적지조사활동, 동굴탐사 등

전라북도 청소년포상제 운영기관

지역	기관명	연락처	등록현황		주소지
			자기도전형	국제형	
전주	다(多)놀	010-9437-8669	○	○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 9길 9, 201호
	덕진야호청소년센터	273-7997	○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11
	야호학교	281-6582	○	○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15-1
	전주영생고등학교	220-3500		○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33
	코끼리가는길	251-2023	○	○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43
	효자야호청소년센터	236-7142	○	○	전주시 완산구 우전 2길 20
군산	진로커리어연구소	451-4572	○	○	군산시 신촌2길 10
	군산청소년수련관	461-4166	○	○	군산시 청소년회관로 75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451-7942	○	○	군산시 양안로 133
익산	(사)새벽이슬	856-1091	○	○	익산시 동서로 222
	익산시청소년수련관	838-1700	○	○	익산시 동서로 476-21
남원	남원시청소년수련관	625-3363	○	○	남원시 충정로 72
	남원CYA	625-1391	○		남원시 동충동 237
정읍	정읍시청소년수련관	533-7920	○	○	정읍시 정읍사로 547
	정읍시청소년문화체육관	535-0305	○	○	정읍시 상동중앙로 14
완주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262-7942		○	완주군 봉동읍 하보살길 18-9
	완주군청소년수련관	290-2777	○	○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
무주	무주청소년수련관	324-4242		○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4
순창	순창군청소년수련관	652-1318	○	○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192
고창	흥덕청소년문화의집	560-8927	○	○	고창군 흥덕면 선운대로 3774
임실	임실군청소년문화의집	640-3023	○	○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50
부안	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	580-4748	○	○	부안군 부안읍 예술회관길 11

청소년포상제 참여 후기

도전은 우리를 성장시켰다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최 정 선**

올해 자기도전포상제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포상담당관으로서 나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그리고 조력자로서의 활동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먼저 이론적으로 포상담당관의 역할과 자기도전포상제에 대해 잘 숙지하는 것이 우선되었다.

두 친구 예은이와 예솔이를 만났다. 평소에도 찰떡케미를 선보이는 두 친구와 활동에 대한 포부, 개념, 계획을 세웠다. 우선 활동이 즐거워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도전하는 자체가 즐거움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의 권유로, 선생님의 권유로 억지로 하는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실행하는 동안 즐거움, 행복감, 뿌듯함이 공존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포상제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두 친구가 도전하고 싶었던 분야,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두 친구는 처음 도전하는 포상제에 매우 들떠 있었고, 즐거워했다.

우선 신체활동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려 있던 몸의 건강함과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고자 달리기와 각종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활동을 진행했다. 몸무게의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지만 두 친구에게는 건강한 습관이 형성되었다. 꾸준히 운동하면 신체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터득하였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했다. 운동을 싫어하는 두 친구에게 신체활동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처음에는 준비운동만 해도 힘들다고 헉헉거렸지만, 활동이 진행되면서 점차 체력이 증진되고, 활동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신감도 상승하기 시작했다. 두 친구는 도전을 통해 느끼는 좌절, 힘듬 그리고 극복을 통해 얻어가는 희열, 성취감을 두루두루 경험하며 맛보았다.

봉사활동으로는 단순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업사이클링(환경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두 친구의 관심사에 맞게 봉사를 통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활동을 선택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친구들이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해지는 법을 알게 된 것 같다. 기관 주변의 어르신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을 볼 수 있었다. 자기개발 활동으로는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힘들어 했지만 익힌 단어가 쌓이고 일본어를 읽을 줄 알게 되면서 어려움은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었다. 포상제 활동을 통해 두 친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익히고 있었다.

탐험활동으로는 선유도 지역탐방 및 환경정화활동인 플로깅, 자전거 타기 등으로 진행됐다. 섬이 주는 특유의 해방감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섬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섬 곳곳을 탐사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와서 춥기도 했었지만, 함께 간 청소년들과 도와가면서 무사히 탐험을 마쳤다. 포상제의 모든 활동이 다 즐거울 수는 없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활동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 때론 귀찮고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 자신감, 행복함으로 채울 수 있었다. 힘든 과정을 경험할수록 성취감은 더 크게 다가왔다.

포상제 활동이 마무리되어갈 때 쯤 두 친구가 성장해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활동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자신감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한 뼘은 더 성장해 있었다.

예은이가 말했다. “쌤~~쌤~~내년에는 금장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 포상제 동장을 끝낸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라며 ~~~예은이의 말 속에서 포상제가 주는 큰 의미를 알 것 같다. 도전은 어느덧 우리를 조금 더 큰 사람으로 만들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동 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아닌, 마음이 성장한 청소년 포상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강 승 오**

포상제 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얻고 , 경험하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개발 활동으로는 평소에 어렵게 느끼던 한자를 공부했다. 익숙하지 않은 글자를 공부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아는 글자가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어휘를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마냥 어렵게만 생각했던 탐험활동을 진행하며 역사적인 장소들을 걸으며 방문해보니 우리 지역에 대해 더욱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체단련 활동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운동을 잘 못하고 체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이라는 생각으로 줄넘기를 시작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줄넘기 실력도 늘고 키도 커 있었습니다.

이번 포상제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일이 있어도 도전해봐야겠다는 제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포상제 활동을 하니 공부실력, 운동실력 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도 한층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활동을 끝내고 나니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다음에도 이런 활동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금장으로 도전볼까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강 승 희**

처음 자기도전 포상제 활동을 하자고 했을 때 힘들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많이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글과는 다른 낯선 한자 공부를 하며 힘들었지만 꾸준히 외우고, 쓰고, 읽었더니 한자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자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막막했지만 꾸준히 도전하다보니 한자가 훨씬 더 쉽게 다가왔고, 한자 자격증이라는 좋은 결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저는 도전했을 때의 성취감을 느껴 참 뿌듯했습니다.

사자성어 공부를 할 때는 한자 공부를 이미 한 뒤라 조금은 쉬울 줄 알았지만, 사자성어의 뜻과 복잡한 한자를 보게 되니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자를 반복해서 써 보고, 암기하며, 뜻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적용하다보니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자어, 사자성어로 나의 생각과 느낌을 짧지만, 핵심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기개발을 위해 줄넘기를 도전할 때에는 한 번 넘는 것도 어려웠지만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하다 보니 200번도 넘게 넘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기술 꽈배기, 2단 뛰기, 8자 뛰기 등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내고 나니 보람차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탐험활동을 6시간 동안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고, 뿌듯했습니다. 차타고 군산역을 가서 군산역 주위를 걸었습니다. 군산역 주변에는 산을 알리는 매우 큰 돌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걸어 힘들어서 중간에 물도 마시고, 밥도 먹었습니다. 헥헥 소리가 날 정도로 많이 걸었습니다. 발도 아프고, 목도 마른 탐험활동 이였지만 보람찼습니다.

자기도전 포상제를 하니깐 뿌듯하고, 기쁘고, 뭐든지 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매일 도전하는 습관과 성취감을 배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금상으로 도전해볼까 합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동 장

금장에 도전하고픈 마음이 생기다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강 예 은**

탐험 활동에선 선유도를 갔다. 섬을 탐사해보거나 플로깅, 자전거 타기를 했다. 섬이라 그런지 바람이 많이 불었다. 많이 부는 바람 때문에 자전거 타는데 방해가 됐다.

자전거를 어렸을 때 밖에 안 타봐서 그런지 페달을 밟는 것도 어려웠다. 계속 연습을 해보니 어느덧 예전 실력을 되찾은 듯 신나게 다녔다. 너무 열정적으로 탔는지 다리가 저려서 조금 쉬다가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는데 어렴풋이 어렸을 때 아빠랑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났다. 자전거를 다 타고 나서 플로깅 활동과 동시에 섬 곳곳을 탐사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쓰레기가 엄청 많아서 놀랐다. 조그만 껌 종이, 음료수병, 스티로폼 등 다양한 쓰레기가 있었다. 다 줍지도 않았는데 4~5봉지가 꽉 찼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여행지라고 해도 쓰레기를 그렇게 함부로 버리면 치우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지구가 점점 아파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섬 곳곳을 탐사하는데 높은 다리도 건너보고 숲 같은 길도 가봤다. 다른 지역에 가서 탐사를 해보니 그 지역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운 것이 있어서 좋았다.

신체활동에서는 가볍게 달리기, 줄넘기,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운동했다. 달리기를 하는 시간을 처음엔 20-30분 정도였다면 시간을 점점 늘려가며 운동을 하고, 운동기구는 겹치지 않게 다른 운동기구를 사용했다. 몸무게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지만 건강해지는 법을 알았고,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을 할 것이다.

자기도전 포상제 활동을 하면서 외국어를 배우거나, 건강해지는 법을 배우거나,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가짐을 배우거나, 다른 지역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내게는 행복한 도전이었다.

또 활동일지를 쓰면서 글 쓰는 실력도 늘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 이제는 전보다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엔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장에 도전해 보고 싶다.

나를 더 성장시킨 포상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박 예 솔**

처음 자기도전 포상제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이걸 끝까지 완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해봐야 안다"라는 말이 떠올랐고 자기도전 포상제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개발로 처음에는 영어를 하려고 했지만 일본어에 관심이 있어 일본어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어의 첫걸음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중 어려운 가타카나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막했지만, 유튜브와 네이버, 일본어 책을 찾아보고 서서히 방법을 택하여 가타카나를 외우며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를 조금씩 읽게 되었고 뜻도 알 수 있어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단련은 운동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나를 바뀌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움츠려있던 몸을 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몸무게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몸은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평소에 환경의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 기회를 통해 환경 정화를 하자 라는 목표를 세우고 기관 근처에 있는 곳에서 쓰레기를 줍고 길거리에도 보이는 쓰레기를 주워 분리수거를 하였습니다. 길가가 점점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또 힘들게 장사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손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탐험활동은 선유도에 갔었는데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니 스트레스가 많았던 내 마음과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주위에 있는 바다도 보고 갈매기들도 보니 정말 시원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족들과 같이 선유도에 놀러가서 다 보지 못한 곳들을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자기도전 포상제가 끝나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끝내지 못하고 포기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열심히 노력해 성취감을 얻으니 정말 좋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성취감을 얻으니 자신감도 올라가고 앞으로 내게 닥칠 시련들이 있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도전 포상제는 나를 한 뼘 더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도전적으로 변화한 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김 현 우**

자기도전포상제를 처음 도전하게 되었을 때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어려웠던 점들도 있었다.

자기개발활동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활동을 계획해보았다. 자기개발활동을 계획하고 진행되면서 4차 산업이라는 말에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메타버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 제페토라는 앱을 깔아서 실행했다. 제페토 조작은 다른 것들과 조작법이 비슷했다. 친구들과 가상 공간에서 전화도 하고, 친구들이랑 다양한 세계를 체험 할 수 있어 좋았다.

신체단련으로는 탁구를 선택했다. 탁구에서 처음에는 공 튀기기를 했고, 포핸드, 백핸드, 랠리를 했다. 탁구 기본기를 연습을 하고,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였다. 처음은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z런을 했다. 기초 체력을 단련을 하고 풋살 기초를 연습했다. 리프팅, 페널티킥, 프리킥 등을 연습했다. 친구와 신체 단련을 함께 하면서 신체 단련이 힘들었지만 운동량이 늘어나는 것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고 땀흘리는 기쁨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지 선생님과 논의하였다. 먼저 우리 자연을 위해 양말목 업싸이클링 활동을 하기로 했다. 정확히 말하면 업싸이클링활동을 위한 사전 작업인 양말목 털기 활동을 했다. 양말목을 털면서 처음에는 힘들지 않았는데 10분 정도 지나니 힘들었다. 계속 하다보니 눈도 따가웠고 먼지가 많아서 마스크도 낀 상태로 하다보니 더 힘들었다. 처음이 가장 힘들었고 그 다음주에는 그 전보다는 힘들지 않았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래도 그 많은 양을 친구들과 함께 같이해서 힘이 덜 들었고, 옆에 친구들이 있어 지루하지는 않았다. 봉사활동으로 양말목 털기와 청소년들이 쓰는 기관을 청소했다. 처음은 청소여서 하기 싫었지만 친구들과 같이 있어 할 수 있었고, 계속 하다보니 혼자 해도 지루하지는 않았다.

탐험활동을 계획하면서 선유도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플로깅을 하면서 재미와 즐거움이 있을 것으로 계획하였다. 탐험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미션을 받았는데 선유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 오는 것이였다. 친구와 자전거를 타면서 많은 사진들을 찍었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친구와 나는 뿌듯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플로깅을 했다. 플로깅은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다. 친구와 쓰레기를 누구보다 많이 줍고 싶어서 빨리 뛰어가서 쓰레기를 주었다. 쓰레기를 제일 많이 주워서 기분이 뿌듯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아서 놀랐다.

자기도전포상제를 하면서 동장을 하면서 꾸준히 활동하고 글을 쓰는 것도 힘들었는데 활동을 무사히 끝마쳐서 기분이 좋았고 내가 조금 성장한 것 같다. 자기도전포상제를 시작하기 전보다 생활에 활력이 생기었고, 도전적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박수를 보낸다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김 민 성**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히 꾸준히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더욱 훌륭해 보이는 것은 아닐까? 나도 그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은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하는데, 자꾸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는 모습이 있어 이번 자기도전도 끝까지 못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해내게 되었다. 내 자신이 대견스럽고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투정 부릴 때마다 잡아주셨기 때문이다.

포상제에 도전하는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봉사활동 하는 날들 중 있었던 일이다. 양말목 털기를 하였는데 벌레가 나왔다. 너무 놀라서 친구에게 양말목을 던졌다. 그런데 친구가 나에게 왜 던졌냐고 물었다. 친구가 양말목에 벌레가 붙어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진실을 말하면 친구가 나에게 화를 낼 것 같아서 거짓말(너가 더 빨리 많이 하라고 양말목을 줬다고)을 했는데 친구는 나에게 어이 없다며 욕을 했다. 그때 차라리 진실을 말했더라면 욕을 더 적게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 친구는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면 괜히 욕을 또 먹을 것 같다. 친구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끝까지 비밀로 해야겠다. 봉사활동을 같이 하니 이런 일도 있구나 싶다. 양말목을 털면서 업싸이클링에 대해 알게 되었고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동참한 것 같아 매우 뿌듯하였다. 그 많던 양말목을 다 털었을 때 기분이 좋았고 양말목을 털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다른 친구와도 친해져서 좋았다. 양말목을 털 때 언제 다할까 했는데 막상 다하고 나니 시원섭섭했다. 자기도전포상제도 마치게 되면서 비슷한 기분이 든다. 다음에는 어떤 도전을 해야할까?

그리고 또띠아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주었을 때 만드는 것은 어려웠지만 나누어 줄 때 뿌듯하였고 또띠아를 나누어 주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만들기를 매우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자기도전포상제를 하면서 올 한해를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많이 있었고 나는 집돌이여서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자기도전포상제 때문에라도 계속 집을 나오게 되었던 것 같다. 자기도전포상제 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도전하고 성취한 내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포상담당관

청소년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시간!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군산청소년수련관 **김 미 영**

2020년 11월 모집된 청소년 5명! 개인별 활동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함께 공유하고 활동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면서 청소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3가지 정기 활동을 정하는 것과 마지막 활동인 탐험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도 고민하며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하나 실천해보기로 하고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포상제를 처음 접하는 청소년이다 보니 너무 어렵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12월에 첫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고, 차근차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성인인 저도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하면 즐거운지에 대해 물어보고 하고 싶었던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면서 함께 고민했고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각자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못해보았던 활동에 참여하면서 흥미를 갖게 되고 포상제 활동하는 토요일이 마냥 즐겁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청소년 덕분에 포상담당관으로 뿌듯함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활동일지를 작성하며 활동을 뒤돌아보고 경험했던 것을 글로 작성해보면서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청소년을 격려해주고 응원도 하면서 함께 활동의 재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부모님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엔 가기 싫다고 하던 자녀들이 재미있다고 하고 지각 안 하려고 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하시면서 활동이 마무리 되어갈 때는 자녀가 집에서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었고, 본인이 손재주가 있었다며 웃는 딸을 보고 아빠가 꿈을 응원한다고 말해주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를 부모님이 먼저 느끼고 소통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전해주시는 부모님이 작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제 마음과 같음에 감사하고 노력한 활동에 대한 충분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은 무엇을 할 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캠페인 계획부터 판넬제작, 마스크줄을 만들고 포장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캠페인시간에는 월명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과 청소년활동을 소개하고 마스크줄도 나누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럽다고 하였지만, 서로 돕고 역할을 나누어서 활동에 참여하였고,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당당하고 멋지게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 후 평가를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물어보니 혼자가 아니라 가능했다는 의견에 맞다 하면서 5명이 역할을 나눠서 제대로 준비한 덕에 가능하였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름을 그리고 나눠야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접하였고, 서로 함께해서 좋다고 평가해주었습니다. 혼자 하지 못하는 활동이지만, 함께해서 즐거웠다는 청소년 덕분에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포상활동을 하며 26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포상제에 참여하면서 꿈에 한발 다가가는 시간임을 알고 있기에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모두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포상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청소년 개개인의 꿈에 조금씩 다가가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함께 포상담당관으로 참여한 저 역시 청소년활동의 기쁨을 경험했고, 청소년들을 만나는 매주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또한, 포상제를 진행하며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지도자의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청소년들에게 멋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느꼈고,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청소년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늦봄터', 자기도전포상제에 도전하다

군산청소년수련관 **이 예 슬**

저는 군산청소년수련관 중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도적으로 도전질문을 해결하고 청소년활동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성취지향적 청소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던 중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활동과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해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과 함께 자기도전포상제 활동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시행착오를 겪었던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활동담당자가 될 담임선생님들이 포상제에 대해 알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포상담당관 교육과 함께 포상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포상제 이해교육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기도전포상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고 활동에 대해 이해하시면서 꼭 포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자기도전포상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여 청소년들에게 자기도전포상제 활동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엔 자기도전포상제 활동이 청소년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도전해봄으로써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 정말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위와 같은 취지가 확 와닿지 않아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잘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활동담당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포상제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활동일지 작성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는 자기주도활동시간으로 활동일지를 작성하였는데 프로그램에는 열심히 참여하고 막상 일지를 적을 때에는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활동이 어땠는지, 오늘 세운 목표에 부합했는지 질문해주며 할 수 있다라고 다독이면서 일지를 작성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포상제 신청도 자기도전포상제를 잘 알고 하고 싶은 청소년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면 포상제활동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시작하게 되어 일반적인 포상제 활동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이다 보니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활동과 활동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포상제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야말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활동을 가장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이 기회를 통해 동장 포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은장, 금장까지 이어서 도전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국제성취포상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의 자기도전포상제 참여에 대한 강점이라고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군산청소년수련관 **김 수 정**

저는 군산청소년수련관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김수정입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를 시작하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지만 활동을 하면서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느끼고, 뿌듯한 것도 있어서 더욱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활동에서는 학교에서 춤을 배워본 적이 있어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고, 바로 관심이 생겨서 댄스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댄스활동을 하면서 안무 연습하기, 스트레칭 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으로 유연성, 안무 익히기, 심폐지구력, 체력 등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댄스동아리 언니에게 안무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도 배울 수 있었고, 그 외에 다양한 아이돌 노래의 춤을 배워서 몰랐던 아이돌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봉사활동에서는 친구들과 캠페인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제를 먼저 정하는데 요즘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봤던 기억이 나 주제를 바로 환경보호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은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하다가 마침 주변 산에 등산객이 많이 온다는 것을 활용해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자료를 조사하는 활동을 좋아해서 환경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각자 역할이 다 있어서 빠르게 피켓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피켓을 다 완성하고 연습을 했는데 설명하는 것이 많이 부끄러웠고 긴장도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어서 점점 긴장이 풀려서 세 번째 연습할 때는 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 월명산 산책로로 나가서 활동을 진행했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 거절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칭찬하시는 분이 더 많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잘 해주셔서 좋았던 경험으로 남았고,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개발활동으로는 연극을 했습니다. 원래 관심과 흥미가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극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연극에서 기본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를 배워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적용하고 스트레칭도 많이 하여 몸이 더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발성연습을 통해 목소리를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대본읽기를 통해 발음을 또박또박, 천천히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본을 읽어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연극에서 주인공 '스크루지'를 맡았는데, 처음엔 너무 자신이 없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격려와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열심히 연습도 하며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 연극을 통해 연극의 기본요소, 필요한 것, 마음가짐 등 얻게 되어 기분이 좋고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탐험활동에선 고창을 방문하여 고창에 있는 지역영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서 싫었지만 막상 가고 나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았고, 의미 있는 곳들을 여러 군데 탐험을 하여 많은 지식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고창의 지역영웅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내가 몰랐던 역사들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활동을 해서 마치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포상제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모든 활동이 재미가 있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느낀 것도 많았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성장을 도와준 자기도전포상제

군산청소년수련관 **김 정 서**

저는 청소년 수련관에 다니는 김정서입니다. 저는 자기도전포상제를 잘 알지 못하였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활동하며 너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체활동에서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방송 댄스를 선택했습니다. 마마무의 딩가딩가,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아이유의 라일락 등 많은 춤을 배웠고, 또 체력을 기르기 위해 줄넘기, 계단 오르내리기, 스쿼트 등 운동을 같이했습니다. 또 스트레칭과 다리 찢기 등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춤을 배우니 보람이 있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아주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재활용&분리수거, 동물보호 등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지만 저는 재활용&분리수거를 선택했습니다. 캠페인 활동을 위해 분리수거에 대해 검색하고 찾아보며 저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설문 조사,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하며 즐겁고 뿌듯한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개발 활동입니다. 자기개발 활동에는 4차산업 드론을 선택했습니다. 드론은 정말 어려워 보였지만 의외로 보기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드론 축구에서 골키퍼를 맡았는데 골키퍼는 쉬워 보이지만 제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드론 레이스는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기인데 직접 코스를 만들 수도 있고, 코스가 매번 달라져서 재미가 두 배였습니다. 창의력이 풍부해지고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고, 평소 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활동이라 더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탐험 활동입니다. 고창 현충 시설 탐험 활동으로 고창에서 많은 현충 시설을 구경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고창 읍성으로 그곳에서 본 멋진 사물놀이는 정말 흥겨웠습니다. 사자탈을 쓴 사람, 깃발을 든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중 깃발을 든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깃대만 5m 정도 되는 큰 깃발을 혼자 힘으로 휘두르던 장면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고창은 나중에 가족들과도 함께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자기도전포상제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글씨 작성입니다. 여러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오늘 나의 활동과 느낀 점을 쓰는 일인데 활동 보고서를 쓰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살짝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작성하기 위해 활동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며 작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힘들지만 재밌었고 목표를 이룬 저의 활동 내용을 보며 '내가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저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자기도전포상제 4가지 활동을 다 마무리하고 활동일지를 덮는 순간 뿌듯함과 함께 왠지 모를 울컥함에 성취감이라는 것을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학생들 특히 제 또래의 학생들이 자기도전포상제를 하면 정말 좋은 활동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커서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동 장

여러가지 도전으로 재밌게 하면서 뿌듯함을 경험했어요!!!

군산청소년수련관 **이 서 윤**

작년 겨울에 친구가 새로운 활동을 한다는 소식에~ 어떤 활동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방문한 곳은 군산청소년수련관이었다. '여기서 뭘 한다는거지?' 생각하면서도 친구도 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들어가보자했다. 선생님이 오셔서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물어봐서 "친구가 한다고 해서..."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활동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신 후 활동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셨고, 참여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다행이다 싶었다.

선생님이 무엇이 가장 자신있는지 물어보셔서 신체활동이라 자신있게 이야기 했고,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선생님과 활동에 참여한 다른 아이들도 그렇다고 해서 안 해본 것과 모르는 봉사활동을 가장 오래 해보면서 도전활동과 성취활동을 진행하자고 하셨다.

봉사활동은 수련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독서실, 보드게임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지 고민했다. 도서를 정리하고 책 목록도 만들었다. 그리고 보드게임 설명서를 만들고 보드게임 부품이 없어진 것과 사용이 어려운 것들을 정리했다. 보드게임 이용하는 친구가 설명서가 있어서 좋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다.

두 번째 봉사활동은 캠페인 활동을 했다. 준비하는 동안 동생들이 장난만 치고 가위질이 서툴러서 내가 많이 했다. 선생님이 고맙다고 하셔서 놀랐고, 포스터 만들기가 생각보다 더 재밌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마스크줄이 쓸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만들었다. 포스터, 마스크줄, 설명멘트까지 완벽하다 생각하고 캠페인의 날이 되었다! 친구들과 역할을 정하고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함께 한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나도 어린이들이 지나가면 함께 하자고 이야기도 해보았다. 포스터를 설명도 하고 스크랩줄도 전달해주었다. 작은 선물이지만, 고마워하고 받으면서 '설명 잘 들었고 이야기 해주셔서 뿌듯하고 뭔가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신체활동이랑 자기개발활동도 목표를 정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도 해주고 친구들과 상의하면서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였고, 8주씩 꾸준히 진행했다.

활동일지를 작성할 때도 어려웠다. 힘들다 한마디밖에 생각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니 어려웠다. 하지만, 활동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활동을 실천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나의 감정을 생각하게 되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탐험활동이다. 5시간 탐험활동을 하면서 일지도 써야 하고 사전교육과 활동 준비모임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하고 활동을 생각해보았다. 미션도 하고 영웅에 대해 미리 학습도 해야 하고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영웅을 생각하니 진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었다. 역사탐방이 힘들긴 하지만, 기억에 남는 것도 많고 역사활동에서 몰랐던 것도 배우게 되어 좋긴 했다. 마지막에 영웅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를 통해 고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을 전달해보았다.

자기도전포상제 4가지를 마무리하고 활동일지를 내는 순간! 무엇인가 내가 했던 활동이 생각났다. 겨울에 시작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포상식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해보지 않았던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해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겼다. 신체활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성취감을 느낀다는게 이런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여했던 다양한 활동이 즐거웠고 무엇보다 친구랑 좋은 추억이 생겨 너무 행복하다.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나의 포상! 자기도전포상제

군산청소년수련관 **장 가 민**

작년 11월이었던 것 같다. 엄마가 대전에 있는 고모와 한참 통화를 하더니 나와 동생에게 와서 앉아보라고 했다.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듣지 않고 엄마에게 혼나지 말자는 생각에 알겠다고 하면서 혼자 하기 싫은데~ 하니 친구랑 같이 하라며 살짝 나를 꼬셨다. 잠깐 가면 되겠지~ 하고 알겠다고 하고 엄마를 따라 수련관에 가게 되었다. 방학이 길어서 잠시 해보자는 생각에 방문하였다. 처음 본 선생님은 청소년지도사라고 본인을 소개했고 처음 듣는 단어라 웃음이 나왔다.

선생님이 설명해주는걸 들으니 16주가 걸린다 하셨다... 4개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만 친구랑 하니 그냥 해볼까? 하고 친구를 보니 나랑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엄마는 집으로 가고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힘들 것 같다와 뭘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해보라고 했지만, 그냥 집에 가면서 새까맣게 잊어버릴 것 같다.

다음 주 엄마차를 타고 수련관에 도착해 어색하게 인사한다. 샘이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다른 친구들까지 총 5명.. 또래집단이란다. 또래집단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한다고.. 설명이 어렵지 않았지만, 뭔가 많이 해야하는 것 같은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다.

샘의 설명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어 신체활동, 자기개발활동, 봉사활동을 정하였다.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해도 되지만, 해보고 싶은 것과 경험하고 싶은걸 해도 된다는 샘의 말에... 조금 설렜다.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신체활동은 배구로 정해보았다. 학교에서 배우던 배구가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정하였지만, 목표를 세워야한다니 어려웠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정할지 샘과 상의하고 친구랑 역할도 나누고 활동에 참여했다. 8주 동안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했다. 손목이 멍들어도 재밌었다.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어 또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8주 동안 열심히 하고 드디어 정한 목표를 이루었는지 알아보았다. 관장님이 직접 오셔서 서브도 넣어주고 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계속 맞춰주셨다. 떨리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한 번에 성공했다! 8주 동안 열심히 한 보람을 느꼈다.

다음은 재능개발활동으로 보석십자수를 했다. 보석십자수를 좋아하던 나와 친구는 보석십자수를 하면서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다. 두 개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했고 마무리할 때 시간이 더 많이 걸

려 집에 가서 완성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쓸았다. 작은 보석하나씩 십자수 자리에 옮길 때 마다 실수하거나 삐뚤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고, 샘이 잘한다고 칭찬해주니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다. 8주 동안 만든 작품 2개를 전시해두고 엄마에게 이야기 하니 엄마랑 아빠가 와서 봐주었고 잘했다고 칭찬해주셨다. 작품 전시가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좋았다.

봉사활동은 가장 길게 진행되었다. 8주는 수련관 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정리하고 이용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보드게임 정리, 리스트 만들기, 게임설명서 만들기 등을 하였고 3주 동안은 투명페트병 분리수거가 시행되는 시점이어서 샘이 환경을 위한 일에 참여해보자는 제안으로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보았다. 다른 친구랑 같이 했는데 내가 더 잘 만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분리수거 홍보 영상을 만들고 보니 나도 더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성취활동은 8주 동안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직접 마스크 줄을 만들어서 홍보하자고 제안한 친구들 덕분에 시작했지만, 나름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 포스터도 만들고 마스크 줄도 제작하고 포장까지 이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했다. 드디어 마지막 캠페인 하는 날! 친구들과 역할을 나누고 함께 월명산으로 가보았다. 월명산에서 함께 캠페인을 1시간 30분정도 했고 어른들이 고맙다고 할 때마다 부끄러워도 뿌듯하였다. 활동을 마무리 하고 힘들다~ 하고 앉아있는데 관장님께서 음료수를 사오셨다. 응원차 방문해주신 것이다. 너무 기쁘고 맛있었다.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그리고 활동하고 소감을 쓰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랐다. 하지만, 포상담당관 샘이 함께 해주었고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모르는 부분은 힌트도 주고 설명도 해주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자기도전포상제를 하면서 나를 한 번 더 보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해보았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3가지 활동을 모두 내 스스로 했다는 뿌듯함인 것 같다. 자기도전포상제를 하면서 대화할 때 조리 있게 말하기도 연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즐겁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돕고 응원하는 수련관이 있으니 괜찮다. 샘도 힘들면 찾아오라고 했으니 나는 대학생이 되서도 찾아올 것이다. 이제 포상받는다. 신난다^^

나만의 성취를 이루다

다놀 **박 주 현**

작년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동장에 도전한 것에 이어, 올해는 은장 단계에 도전을 하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느슨해진 나의 일상에, 청소년포상제가 마음을 다잡고 매주 꾸준히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올해도 6개월간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며 중학교 생활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싶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은장에 도전을 하였다.

은장은 동장과는 달리 24주간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해서, 처음에는 내가 6개월간 빠지지 않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한 해가 지난만큼 내 자신도 성장했을 것이라고 믿고, 우선 두려움을 떨쳐내고 앞으로 6개월간의 계획을 짜게 되었다. 내가 24주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일지, 나를 개발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에 어떤 것이 있을지를 고민하며 자기개발, 봉사, 신체단련, 탐험 활동을 정해보았다.

먼저 자기개발 활동으로는, 내가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중국어를 익혀 중국어 이야기 두 편을 읽어보고 영상을 촬영하여 다문화 가정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내 24주간의 목표로 삼았다. 중국어는 이전에 기초적인 것만 배운 기억이 있어 거의 새로 시작하는 것과 다름 없었지만, 24주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중국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보겠다는 도전으로 자기개발 활동을 시작했다. 내가 스스로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 24주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매일 하나하나 달성해나갔다.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익히다보니, 내 실력이 매 주마다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주가 지나고 나서는 그동안 익혔던 표현들과 단어들을 바탕으로, 이야기에 적용하고, 응용하며 읽어낼 수 있었다. 이야기 읽기를 모두 마친 이후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이야기 낭독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전달하였는데, 내 목표를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성취감을 모두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다.

신체단련 활동으로는 이전까지 계속해오던 검도에 이어서, 새롭게 태권도를 배워보게 되었다. 24주간 태권도의 모든 품새를 익히고 연습하여 신체를 단련하고자 하였다. 태권도는 나의 몸을 직접 써서 하는 것이어서, 처음에 품새의 동작을 익히고, 자세를 교정할 때는 잘 외워지지 않아 힘들었던 적이 종종 있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보니 동작도 몸에 익게 되고, 처음보다는 훨씬 절도 있는 동작이 나오게 되었다. 24주 동안 성실하게 운동을 하다보니, 내 신체도 이전보다 훨씬 단련되고, 또한 많은 연습을 통하여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다.

봉사활동은 지난번에 이어 '점자 도서 워드 입력 봉사'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 내가 맡게 된 도서는 '빨간 머리 앤'이었는데, 이전에 재밌게 읽은 적이 있는 작품이라 이번 봉사활동이 더욱 기대가 되었다. 워드 입력 봉사를 하면서, 나도 같이 책을 다시 읽어볼 기회가 생겼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 다시 읽어보니 그때와 느낀 점이 또 달랐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책의 감동을 나의 손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동시에, 나 또한 같이 책을 읽으며 그 재미와 기쁨을 공유할 수 있어 뿌듯함과 동시에 나에게 책 읽는 것의 즐거움까지 전달해주는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활동 계획을 세운 뒤 탐험활동은 이번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 참가했던 '두 바퀴로 떠나는 자전거 여행'을 이번 해에도 다시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탐험활동으로 그 활동을 선택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은장을 목표로 하고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교육, 예비탐험에 걸쳐 2박 3일간 자전거로 총 160km를 달리는 것을 내 목표로 삼았다. 작년에 이 활동에 참여하였을 때 몸은 좀 힘들긴 했지만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 올해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연습해서인지 작년에 비해서 자전거를 좀 더 수월하게 타게 되었지만, 2박 3일 동안 160km를 달리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중간중간 다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파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세운 목표를 최선을 다하여 이뤄낸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해나갔다. 2박 3일간의 자전거로의 여정을 모두 마쳤을 때, 힘든 것을 이겨내고 나만의 목표를 마침내 달성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탐험활동이었다.

24주간 이어진 청소년포상제 활동을 통해서, 내 계획을 하나하나 달성하여 제가 원하던 것을 성취하는 뿌듯함과 계획한 바를 끝까지 해내는 끈기와 좋은 습관, 그리고 남을 돕는 데서 오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를 통하여, 단순히 공부만 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을 단련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내 또래 청소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다.

올해 24주간의 활동으로 청소년포상제 은장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 활동은 끝났지만 나에게는 청소년포상제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것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또 한 번 발전하게 된 나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꼭 금장에 도전하여 또 다른 나만의 성취를 이뤄내고 싶다.

자기도전포상제 은장 도전을 완주하다!!

다놀 **박 호 준**

저는 평소에도 코로나 시국에도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을 찾아보고자 노력하며 실천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작년에는 처음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제에 입문하면서 동장을 열심히 수행하여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동장을 완료한 제 자신이 참으로 대견하고 뿌듯하였습니다. 이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에 올해에는 다음 단계인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제 은장에 도전하였습니다.

이번 은장에서는 봉사활동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 만들기를 위한 워드 봉사, 자기 개발 활동으로는 중국어를 배우고 익혀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중국어 동화책 읽어주기를, 그리고 신체 단련 활동으로는 태권도 품새 익히기를 하여 튼튼하게 체력을 단련하였습니다. 역시 많은 활동을 하느라 바쁘고,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작년에 해봐서인지 조금은 더 수월했습니다.

봉사활동에 들어갈 활동으로 열심히 진행한 점자책 만들기 워드 봉사에서는 지난번 동장과 같이, 이 책을 읽으며 한자 한자 정성스레 타자를 치는 나도, 그리고 나로 인해 점자책으로 새롭게 탄생한 이 책을 읽을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유익할 만한 좋은 책들을 봉사활동을 겸해 읽게 되면서,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나의 재능을 기부한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겹쳐, 매우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금장에서도 이 봉사활동을 연이어 할 수 있다면 꼭 다시 하고 싶은 활동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활동을 하며 성장함을 느꼈던 건 탐험활동이었습니다. 만경강 일대를 자전거로 연이틀을 라이딩하였는데, 작년엔 제가 초등학생이기도 했고, 달리는 중에 넘어져 구르기도 했던 터라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제가 중학생이 되었고, 신체 단련 활동을 하며 체력을 길러서인지 담당 선생님과 선두에 서서 즐겁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을 담은 풍경들이 달리는 내내 반겨주어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며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한 나의 모습이 너무도 감사하고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권유해주고 싶은 유익한 활동이란 생각에 학교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학교 친구들에게 안내를 부탁까지 했답니다.
이렇게 소감을 남기는 지금도 동장에 이어 은장 활동까지 잘 완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개무량합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과 형, 누나들 내년에도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뿌듯함이 함께 한 청소년포상제

다놀 **송 혜 령**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주춤하던 지난 2020년 1월, 엄마의 추천으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동장에 도전하게 됐다.

처음에는 그냥 계획 세우고 정해진 시간에 활동하고 일지 작성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계획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기도 너무 어려웠고, 사진으로 남기고, 기록하는 일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자기개발활동은 평상시에 꾸준히 하고 있는 첼로연주를 해서 친구들에게 들려줘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행했다. 첼로는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깊이 빠져드는 것 같다. 연습도 하고 유튜브로 연습한 곡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공부도 했다. 규칙적으로 연습하다보니,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뿌듯했고, 친구들에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주니 친구들도 너무 좋다고 얘기해줬다.

자기개발활동을 마치고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취활동으로 첼로연주연습을 이어갔다. 첼로연주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학교등교가 어려운 날에는 줌수업을 진행하고, 줌수업이 끝나고 나면 성취활동으로 열심히 연습해 온 첼로연주를 학교친구들에게 들려줬다. 첼로를 연주하는 내가 부럽다는 친구도 있었고, 잘한다고 얘기해주는 친구들도 있었다. 우리학교는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등교하는 날 점심시간에 첼로연주를 친구들과 선후배, 그리고 선생님들 앞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관람한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고 첼로연주가 너무 좋다고 칭찬해줘서 행복했다.

학교수업 마치고 학원 다녀오면 시간이 늦어져서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 신체활동으로 유튜브로 스트레칭과 코어운동을 했더니 키도 많이 크고 몸무게도 빠진 것 같아서 스스로 너무 뿌듯했다. 자기 전에 운동을 하고 자니 몸이 개운하고 참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봉사활동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다육이를 키우고 보살피면서 번식시켰다. 정성껏 키운 다육이 화분을 할머니와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드렸다. 다육이를 어른들께 드렸더니 고맙다고 잘 키워서 번식시켜보겠다고 말씀해주셨다. 도심 곳곳에 식물들이 많아져서 도시가 숨을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등교가 들쑥날쑥해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행히 탐험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과 완산칠봉 녹색길을 걷고 역사적 배경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제약이 있었지만, 목표했던 것을 잘 지킬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다. 내가 나태해질 때마다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포상담당관 선생님과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내 희망,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다놀 홍 서 영

나는 올해 처음으로 포상제 활동에 도전했다. 처음에 내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정말 재미있었다. 포상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혹시 힘들지는 않을까 귀찮지 않을까 했었다. 그렇지만 막상 시작해보니까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보람찬 활동들이었다. 포상제 활동 후에 작성하는 것도 좋았다. 작성하면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고, 이 활동들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포상제 활동의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한 활동들을 돌아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포상제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 감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보냈던 하루하루가 포상제를 시작한 뒤에는 의미있는 하루하루가 된 것 같다. 올해 포상제를 시작한 것이 정말 신의 한수였다. 포상제는 반복되던 내 일상을 변화시켜줬고 tv만 보던 주말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재미있게 보낼 수 있게 해주었다.

포상제 활동으로 나는 쓰레기 줍기, 배드민턴 연습, 노래 듣고 악보 적기를 했다.

쓰레기 줍기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우리 지구를, 우리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학교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후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내 작은 정성으로 우리 동네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우리 동네에 생각보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에 더 놀랐다. 이미 쓰레기 줍기 활동은 끝났지만 나는 가끔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보게 되면 아무 생각없이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주워서 주위를 쓰레기통에 넣곤 한다.

다음 활동은 배드민턴 연습이다. 이 활동으로 나는 내 배드민턴 실력을 더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수업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었다. 포상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솔직히 별 의미없이 그냥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배드민턴을 배웠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기술을 배웠고 내가 부족한 점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배우게 되었다.

그 다음 활동은 노래 듣고 악보 적기이다. 이 활동이 내 실력을 가장 향상시킨 것 같다. 이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서 화도 났고 재미도 없었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점점 실력도 늘 뿐만 아니라 더 재미있어져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탐험활동은 사실 정말 힘들었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같이 하는 활동이어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활동하며 역사도 더 잘 알 수 있고 보람차고 의미있는 활동이라서 더 좋았었다.

그리고 나는 진로활동도 진행했었는데 진로활동도 재미있었다. 솔직히 나는 진로활동이 가장 좋았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내 진로를 정확히 모르겠고 내 진로를 찾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진로활동으로 조금이나마 내 진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매우 매우 고마운 활동들이었고 내년에는 은장에 도전하고, 내후년에는 금장까지도 도전해보고 싶다. 포상제는 내 희망이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동 장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청소년포상제

다놀 홍 재 완

저는 올해처음으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활동에 도전해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포상제 활동을 한 후 작성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계획서를 작성하고 활동을 하면서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보람차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제가 끝나갈수록 점점 아쉬워졌습니다. 3가지 활동이 끝날 때마다 뿌듯함과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의 생활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주말의 ⅓이 TV였지만 포상제를 통해 주말에 TV만 보는 것이 아닌 쓰레기 줍기, 종이접기 등의 활동이 제 생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으로 쓰레기 줍기를 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쓰레기를 주워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기였습니다. 계속 쓰레기를 줍다보니 점점 쓰레기를 줍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매번 많이씩 주워져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던 과거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활동으론 종이접기를 하였습니다. 종이접기는 포상제 참여 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포상제 활동을 통해 몰랐던 종이접기 기술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접기 실력도 처음에 비해 엄청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단련 활동으로는 태권도를 했습니다. 태권도는 여러가지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품새를 연습하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7장, 8장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탐험활동으로는 완산칠봉 녹색길탐험을 했습니다. 방공호와 완산칠봉정상, 전주기념 입성비를 거쳐 애국지사 이기 선생과 김영호 추념비에 도달했습니다. 이어 완산 투구봉과 녹두관, 김성균 조각가 작업실을 지나 탐험을 완료하였습니다.

포상제 활동을 마치며 생각해보니 모든 활동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지만 모두 보람찬 활동이 되었고 이번 포상제를 통해 나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쉿! 이건 비밀인데 저는 자기개발 활동이 가장 어려웠어요!!"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동 장

재미로 시작한 포상제,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

디놀 **황 다 경**

청소년포상제를 엄마가 한번 해보래서 도전해보고 하면 재미있을 거 같아서 시작했다.

봉사활동으로 쓰레기 줍기를 결정해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자기개발활동으로 엑셀 사용법 익히려고 했다. 신체단련은 줄넘기활동으로 내 성장판을 자극하려 했다.

탐험활동은 완산 칠봉 녹색길로 다녀왔다. 완산칠봉을 산으로만 생각했는데 투쟁의 혼과 구국의 넋이 곳곳에 기념비와 추모비로 많은 생각을 하게했다.

각각의 활동들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 있고 하고 싶었던 것들로 쉽게 지치지않고 나의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선택했다. 문제가 생겼다. 쉽다고 생각한 활동은 처음엔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싫어졌다. 코로나19로 점점 나태해지기도 하였지만 다시 기억해 내 열심히 했다.

가장기억에 남는 활동은 탐험활동인데, 친구들이 함께 했다. 아침 일찍 움직여서 8시간 탐험활동을 했는데 추모묵념을 곳곳에서 하고 전망대에서 전주시내를 볼 수 있었다. 마냥 편하지만 않았다. 계속 걷고, 걷고, 걷기만해서 기진맥진했지만 동생, 오빠들과 함께해서 재미있었다. 숲해설사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모기.숲 이야기도 듣고 기피제도 만들고 방공호, 파랑새관. 녹두관. 초록바위 등을 다녀온 게 기억에 남는다.

이번 활동 후 은장을 도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은장 활동 때는 계획을 잘 세우고, 완벽하게 해내서 나의 도전에 대한 성취감을 만끽하고 국제포상제 활동도 도전해보고 싶다.

황다경 홧팅이다!! 잘 마무리한 나 자신을 칭찬하고 싶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리다

사단법인 새벽이슬 **김 미 경**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새벽이슬 사무처장 김미경입니다.

포상제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3년이 되니 많은 에피소드들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활동을 멈출 뻔 한 친구도 있었고, 포상제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준 청소년이 자기도전 금장 포상을 하게 되었고, 이젠 홍보하지 않아도 포상제를 경험한 친구들의 부모님들께서 주변에 소개해 주어 감사하게도 다수의 청소년들과 함께 포상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상제를 진행하는 청소년들과 재능기부도 하고 다양한 활동도 하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얼마 전 진행한 탐험활동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연합탐험활동을 참여할 때는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탈 때 차로 이동하면서 안전지도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1박 2일간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눈물이 핑돌며 감격과 감동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때 했던 생각이 '나도 청소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 저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자전거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자전거 실력은 운동장을 몇 바퀴 도는 정도였기에 연습이 필요했고, 내가 혹시 자전거를 못 타서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전거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주 5일 이상 5개월 동안 미륵사지 자전거 도로에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안장통과 근육통으로 매일매일이 아파 힘들었고, 체력과 근력이 없다보니 미륵사지까지 가지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덕이 나오면 자전거로 올라가지 못해 걸어야만 했던 적이 계속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번 연습을 하다 보니, 언덕도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게 되었고 미륵사지까지도 완주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때의 감정은 말로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다리에 힘이 길러졌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많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탐험활동이 계속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전거 연습량은 늘어만 갔고 처음엔 청소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목표와 책임감으로 연습을 했지만 언제부턴가는 자전거를 즐기면서 타게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탐험활동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탐험활동을 미루던가 아니면 개인 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끝에 그동안 연습을 했으니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몇몇 기관과 연합하여 탐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이 큰 사고 없이 탐험활동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탐험활동이 끝나니 모든 상황이 감사했고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소통하며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니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올 한해도 청소년 포상제 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즐겁게 활동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또 어떤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던 금장 활동

사단법인 새벽이슬 **유 지 은**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금장을 수료한 유지은입니다.

저는 봉사활동으로 쓰레기 줍기를 했습니다. 공원에 있는 고무, 플라스틱, 종이 등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줍고, 마지막 활동으로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지 마세요."라는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니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주웠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에는 주울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신체단련활동으로는 걷기를 했습니다. 공원의 여러 가지 길을 걸어 보고, 마지막으로 익산 미륵사지석탑까지 걸어갔다 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걷기 활동을 통해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륵사지석탑까지 멀게만 생각했는데 평소에 걷기를 해서 끝까지 완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개발로는 독서 논술을 했습니다. 독서 논술에서 글쓰기와 찬반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논술을 해 보니 수업 시간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탐험활동은 2박 3일 동안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전거를 타니 기분이 상쾌해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길러지는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숙박을 못해서 아쉬웠지만 유익하고 끈끈한 정이 생기는 시간들 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장, 은장, 금장을 성실하게 성취하니, 제 자신이 대단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모든 활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방향을 잘 잡아 주고 이끌어 주신 사단법인 새벽이슬 김미경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적성을 찾게 해준 청소년포상제

사단법인 새벽이슬 **이 채 원**

친한 친구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목표를 잡는 게 어려워 몇 달이나 시간을 끌었었지만 목표를 한 번 잡고 나니 금방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주 신체활동, 자기개발, 봉사활동을 하고 포상활동에 일지를 써야하니까 매일 매일 놀던 나는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많이 났었다. 그랬지만 내가 활동한 것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내 스스로가 뿌듯함을 느끼고, 자기도전 포상제를 쓰는 것이 일기를 쓰듯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로인해 짜증났던 것과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포상제 활동에서 자기개발은 요리, 봉사활동은 도서관 봉사, 신체활동은 줄넘기, 탐험활동은 청암산 트렉킹을 했는데, 그중 자기개발인 요리가 가장 재미있었다. 그 이유는 다른 활동보다 자기개발(요리) 활동을 통해 요리라는 취미를 찾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개발 활동이 가장 재미있었다.

활동목표가 직접 요리해서 골고루 먹도록 노력하기였는데 내가 싫어하는 피망, 파프리카 등이 들어가 먹기 좀 힘들었다. 또한 레시피를 미디어로 찾아보고 요리하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종종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도 써야 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짜증도 났었다. 하지만 유튜브와 책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요리에 대한 공부도 조금 조금씩 해서 요리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먹기 싫은 식재료들도 편견을 버리고 먹어보려 노력했다. 그 덕분에 요리가 취미가 되었고, 베이킹과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요리에 대해 좀 더 알게 되고, 각종 채소 손질법, 칼 다루는 법, 쉬운 요리법, 싫어하는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내가 요리를 해서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었을 때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이 맛에 요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엔 에그타르트를 만들어 베이킹을 혼자서 처음으로 시도해보았다. 가족들이 내가 혼자 만들었는데 실제 제과점에서 파는 것처럼 만들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자기개발 활동을 통해서 베이킹 같은 적성에 맞는 취미를 얻었고, 숨어 있던 나의 요리 실력을 발견했다. 요리로 성취활동을 했는데 16번이나 했는데도 요리를 할 때마다 '오늘은 요리를 만드는 날이네'라고 생각이 들고, 요리를 만들 때마다 설레고 신이 났다.

자기도전 포상제를 하며 나의 적성에 맞는 취미를 찾아서 기쁘고, 자기도전 포상제 같은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 내년에 은장, 금장을 하면 또 요리처럼 재미있는 활동을 해서 동장처럼 재미있게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할 활동이 무척 기대가 되고 설레인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금 장

멋진 언니가 되고싶다

사단법인 새벽이슬 **이 지 원**

뿌

언니의 추천으로 자기도전 포상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활동에서 자기개발은 바이올린, 봉사활동은 쓰레기 줍기, 신체활동은 걷기, 탐험활동은 청암산 트렉킹을 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청암산 트렉킹이었습니다. 트레킹을 가기 전날 비가 내리고 날씨가 쌀쌀해져서 추울까봐 걱정을 했는데 걷다보니 반대로 너무 더워서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날라 다닐줄 알았는데 다리와 몸이 갑자기 무거워져서 나 자신에게 속상했다. 함께한 선생님들과 언니 오빠 덕분에 청암산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에게는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신체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다리가 갑자기 튼튼해 진거 같았다. 그래서 듯했다.

포상제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었다. 길가에 쓰레기를 나도 모르게 자꾸 버리곤 했는데, 그런 내 모습과 우리 집 주변에 떨어져있는 많은 쓰레기를 보며 봉사활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 우리 집 주변을 깨끗하게 하면 어떨까? ' 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던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되고 쓰레기가 많이 있는 곳을 보며 '어떻게 하면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지금도 가방 안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모아오는 것을 하고 있다. 활동이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해야 할 것 같다.

피아노를 배우다 악보를 보는 것이 싫어 포기했었는데 언니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에 한곡이라도 연주해보자는 마음으로 자기개발로 바이올린을 선택했다. 바이올린을 어떻게 잡을지도 모르는 내가 한곡을 연주하고 나니 욕심이 생겨 매일 집에서 연습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곡들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목표로 잡은 곡을 열심히 연습해서 부모님께 들려드리면 정말 뿌듯함과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공개수업에 연주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

성취활동 목표를 공개수업에서 연주하기로 잡고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곡을 연주하게 되었는데 계이름도 모르는 내가 막상 연주를 하려니 자꾸만 바이올린이하기 싫어지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연주를 하려고 하니 너무 어렵기만 했지만 '틀리면 어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며 한 주 한 주 꾸준히 연습을 하니 악보를 외울 수 있게 되고, 공개수업 때 떨렸지만 틀리지 않고 끝까지 연주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성취활동까지 하며 느낀 점은 연습하면 안 되는 것은 없다고 느껴져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노력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의 막내이고 울보 떼쟁이지만 포상제를 통해서 나는 멋진 언니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고 혼자서도 무엇이든 노력하며 사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익산시청소년수련관 **김 승 진**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김승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소년 대면 활동이 줄어들고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 올해 처음 두 명의 청소년과 국제 청소년성취포상제 동장에 함께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도전에 대해 기대를 하고 포상제 활동하면서 열정 가득히 청소년과 함께 신체활동도 하고 탐험 활동을 통해 자전거 종주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중간 중간 기록 작성에 대해 질문을 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꾸준히 포상제 교육을 듣고는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만큼 스스로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에는 포상제 직무 연수를 통해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직접 참여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직접 청소년과 포상제를 경험하면서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상제를 하면서 4가지 성취목표를 위해 활동을 기록하고 사진을 남기며 하나의 일기처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기록은 어렵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서 3줄, 4줄 작성하기가 어려웠으며, 무슨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배움으로 활동 횟수가 지날수록 점점 기록하는 속도와 내용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느리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포상제 활동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활동입니다. 올해는 특히, 탐험 활동이 처음 계획했던 일정이 취소되고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의 선생님들이 포상제 청소년들을 위해 하나로 뭉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한 명의 낙오자 없이 탐험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 국제 청소년성취포상제를 하면서 저 또한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쉽게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한 자전거 종주도 만약 저 혼자 다녀왔으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중간 중간 엉덩이도 아프고, 날씨도 춥고 힘들었지만, 앞뒤로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달리고 파이팅을 외치며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모습을 보고 자전거 페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포상제는 함께 성장하고 서로가 의지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성취포상제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청소년포상제

익산시청소년수련관 **김 태 영**

안녕하세요. 익산시청소년수련관 김태영이라 합니다. 이번에 포상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하였습니다.

봉사를 하면서"하면 된다"라는 것을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순천에서 익산으로 꿈을 향해서 올라오게 되면서 아는 사람도 없는 타지에서 저에게 봉사는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분철작업, 기관 방역, 도서 소독 및 정리 등 처음해보는 활동들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일단 해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순간순간 참여했고 이렇게 실천해왔던 결과 "하면 되는 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평소에 매번 '책을 읽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어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포상제활동을 통해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0대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평소 읽고 싶었던 자기 개발서를 주로 골라 읽었습니다. 청소부 밥 아저씨의 10가지 지침을 가끔씩 되뇌며 가족의 소중함, 지칠 때는 쉬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계신 사람들의 인생을 살며 느낀 점을 책 한권으로 경험해볼 수 있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신체단련하면 제가 좋아하는 축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날씨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줄넘기가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해보니 줄넘기가 좋았습니다. 줄넘기 시작하기 전에는 "1000개? 가뿐하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100개도 못하는 저를 보면서 체력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부족한 체력도 보충하면서 줄넘기 개수를 늘려 나갔고 이제는 5분 이상 끊기지 않고 쭉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포상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많이 느끼며 저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계기인 거 같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탐험활동은 초등학교 때부터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왔던 저에게 이번에 다녀온 약 100km 가까이 되는 거리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협동 할 수 있는 힘"을 배운거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탄다고 해서 먼저 빨리 치고 나간다고 한들 뒤에 있는 분들이 따라 오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날에는 항상 선두에 있었지만 두 번째 날에는 꼬리에 있으면서 뒤에 있는 분들에 맞춰가면서 격려하고 함께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다보니 확실히 전 날보다는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동 장

기억에 남은 청소년활동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안 혜 인**

자기개발 활동으로 영어단어 외우기를 계획하였다. 처음에 단어 30개를 암기하고 시험을 볼 때는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단어를 계속 외우다 보니까 적응이되서 나중에는 단어를 외우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별로 힘들지도 않아서 뿌듯했다. 신체활동은 줄넘기를 도전하였다. 처음에 잘되지 않아 힘들었다. 집에서도 연습하고 수련관에서도 연습하였고 나중에는 2단뛰기 줄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뿌듯했다.

봉사활동은 수련관 주변의 쓰레기가 많이 보여 환경정리를 하여 깨끗이 해보고 싶었다. 처음에 봉사활동을 할 때는 좀 힘들었는데 쓰레기를 줍고 도서관 정리도 하며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었다.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왠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탐험활동을 할 때는 산을 몇 시간 동안 올라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힘들었는데 막상 올라보니까 내리막길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르막길은 오를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래도 산 정상에 다 올라가보니까 시원하고 좋았다. 하지만 다시 내려갈 생각을 하니 생각만 해도 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갈 때는 모두 내리막길이고 올라올 때 보다 길이 평평해서 내려갈 때가 올라갈 때보다 더 힘이 덜 들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한 활동들 중에서 탐험활동이 가장 어려워서 기억에 가장 잘 남는 것 같다.

모든 활동들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 힘들지 않고 오히려 뿌듯해서 청소년포상제 활동은 기억에 남게 되었다.

내년에는 은장에 도전할래요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임 하 엘**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시청소년수련관의 임하엘입니다.

저는 자기도전포상제를 엄마가 해보라고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뭔가 하는 것보다 활동일지 쓰는게 제일 힘들었고 생각해서 써야 되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다.

봉사 활동은 그루터기청소년작은도서관에서 책정리와 책장 먼지 닦기와 바닥 쓸고 닦는 것을 하다 보니 선생님이 말씀만 하시면 혼자 스스로 하게 되었고, 수련관 바닥 낙엽과 꽃잎 쓸기, 그리고 주변 쓰레기를 줍다보니 어느 곳에 담배꽁초가 더 많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정말 쓰레기가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더워서 땀도 많이 났고 중간중간 얼음물도 많이 먹었지만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다 끝난 후에는 도서관에서 즐겁게 책을 봐서 행복했다.

탐험 활동은 선생님들이 청암산을 다녀왔는데 오르막길, 내리막길, 평평한 길이 많았다. 올라갈 때는 위험해서 나무를 잡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다다다다 뛰며 내려갔다. 올라 갈 때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땀도 나서 싫었지만, 포기 하지 않고 힘들어도 꾹 참고 올라온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내려 갈 때도 위험한 길이 있어서 나무를 잡거나, 선생님들의 손을 잡고 내려갔다. 내려가면서 대나무 숲을 지났는데 대나무 향기가 나서 상쾌하고 시원해서 좋았다. 대나무숲에서는 평평한 길이어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대나무 숲을 편하게 지났다. 대나무 향기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

신체활동에서는 줄넘기를 바른자세로 뛰는 것을 목표를 잡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처음 계획 할 때는 100개도 그냥 뛸 수 있었는데 허리를 바로 세우고 겨드랑이를 붙이고 다리는 가볍게 총총 뛰는 것을 알게되고 그대로 했는데 열 개도 못 했다. 줄넘기만 하면 등이 너무 아파서 나도 너무 놀랐었다. 한 번 두 번 바른 자세로 뛰는 것은 잘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번갈아뛰기와, 두박자 뛰기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무릎이 많이 구부러져서 자세를 계속 신경쓰면서 뛰어야 했다. 마지막날에는 이 모든 자세로 가볍게 뛰게 되서 너무 뿌듯했다.

자기개발은 그루터기 청소년작은도서관에서 동화마술수업으로 했다. 내가 젤 많이 생각나는 것은 모두에게 박수 받았던 건데 캄캄한 곳에서 이쪽 손에서 저쪽 손으로 반딧불이가 옮겨 다니는 마술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예쁜 마술쌤이 책을 읽어주시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칭찬도 들어서 으쓱했다.

활동일지, 활동보고서 쓰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다 마치고 심사받는다고 생각하니 심장도 떨리면서 통과되면 좋겠다고 생각도 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꽃잎을 쓸어냈던 기억과,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맙다고 인사해주셨던 것들에 힘이나서 더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다. 내년엔 은장도 도전해서 스스로 목표도 세워서 해봐야겠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동 장

잘했어! 토닥토닥♡

익산시청소년수련관 **한 윤 수**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라는 말이 낯설었는데 엄마와 선생님께 설명을 들으며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체험하는 것보다 나의 목표를 위해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될 것 같아 두근거렸다.

자기개발 활동으로는 태권도를 목표로 하였다. 태권도는 태극 1장부터 고려까지 어려웠고 다리찢기, 물구나무서기 등 점점 고난도였지만 기운을 내서 집에서도 연습하고 사범님께서 응원해주셔서 멋진 품새로 2단을 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봉사활동으로 수련관 환경정리와 도서관에서 활동을 계획했다. 난생 처음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랑 도서관 책정리, 바닥쓸고 닦기, 걸레도 빨아보고 집게로 쓰레기를 주우며 수련관 주변을 탐색할 수 있는 재미도 있어 뿌듯했다.

신체활동으로는 줄넘기를 했다. 체력단련을 위해 줄넘기도 학교 끝나고 활동 끝나고 틈나는 대로 연습할 수 있어서 줄넘기대회 스피드 전에서 우수상도 받고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탐험활동으로 참여했던 등산이다. 등산은 산을 숨넘어가게 등반한 것 같다. 엄마와 선생님이 싸주신 간식과 도시락으로 배부르게 먹은 뒤 친구들과 형과 누나들과 신나게 사진도 찍고 좋은 공기 마시며 모든 활동의 목표를 다 이룬 것 같아 너무 좋았다. 한윤수!! 파이팅!! 잘했어! 토닥토닥♡

은장을 도전해볼까~~

익산시청소년수련관 **홍 지 영**

저는 자기포상제가 처음엔 뭔지도 모르고 수련관 쌤의 소개로 엄마가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설명을 들었어도 잘 모른 채 그렇게 시작을 했다.

봉사활동은 수련관의 환경정리와 프로그램 봉사로 계획을 했고...봉사활동 이건 너무 재미있었다. 자기개발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으로 관심있는 것으로 하면 좋다고 하셔서 도서관에서 수업하던 요리가 생각나 요리로 결정했다. 몰랐던 요리들을 주신 재료를 다듬고 만들고 맛을 보게 되면서 요리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내가 만든 요리를 부모님께 맛보여드리니 맛있다고 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스스로 뿌듯했던 시간이었다.

신체활동에서는 줄넘기... 쉽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날이 더워서 뛰면 계속 땀이나 줄넘기 말고 다른 걸로 정할까라고 잠깐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냥 줄넘기로 계속 뛰다보니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숨도 덜 차게 되고 땀도 나지만 기분이 좋았던 시간이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주말마다 수련관을 가야되는데 쉬고 싶을 때도 약속했으니 지켜야한다는 생각에 너무 부담스럽고 이 포상제를 포기하려고 생각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같이 봉사활동 하던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놀면서 기분이 풀렸고 엄마께서 올해 마무리로 포상제를 잘 마치자라고 하셔서 다시 또 용기를 내서 포상제 하러 갔었다.

신체활동도 봉사활동도 자기개발도 하다 보니 또 재미가 있어 열심히 하게 되었고 특히 청암산 등반은 자신이 없어 집에서부터 안 간다고 싫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안전교육을 받고 청암산을 향하니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 덥고 벌레도 많고 정말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걷다보니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꾹 참고 최선을 다해서 정상까지 올라갔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들고 뿌듯했다.

그리고 성취활동에서는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했을 때가 제일 재미있어서 8주를 더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할 뿐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 해냈는지...

목표를 정해서 끝까지 해내고 또 일지를 쓰고 마무리까지 한 것이 초3 인생 처음이라 뿌듯하고 너무 기쁘고 재미있었다. 은장을 도전해볼까~~

자기 개발을 위한 한걸음

전주영생고등학교 **소 민 섭**

고등학교를 처음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이 성취포상제인데, 한 학년 동안 나와 함께 제일 오래한 활동이고 그만큼 해내기 어려운 활동 이였는데 막상 하고나니 해냈단 뿌듯함이 든다. 처음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포상제 활동이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추천하셔서 별 생각 없이 신청했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는 단계인 성취목표를 잡는 것, 계획을 짜는 것 등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다. 12회차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네 가지 영역의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아톰활동이었다. 평소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혼자서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를 구성하고 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과학관련 실험과 내용에 대해 학습하였다. 성취목표는 과학에 관한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잡았다. 과학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토론도 하고 실험을 하였다. 특히 소금과 아세트산을 이용한 전지 만들기 실험은 전자 이동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전기의 작동원리를 깨우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신체단련활동으로 농구를 선택하였는데, 평소 운동 중 농구를 가장 좋아하였고, 이번기회를 통해 기본기를 탄탄히 익히고 싶었다. 농구 운동을 하면서 기본기를 매번 연습하고 연습경기를 진행하니 확실히 기본기가 향상된 게 느껴졌다. 땀을 흘리며 농구를 하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플로깅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바쁘게 지내면서 살펴보지 못한 우리 지역 주변을 더 살피게 되었다. 쓰레기를 주우며 다니니 주변의 경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경관이 더럽게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플로깅을 하며 환경 정화활동을 하니 깨끗한 주변 환경에 덩달아 기분도 상쾌했었다.

탐험활동 중 부안 마실길이 너무 기억에 남았다. 코로나로 인해 야외 활동을 거의 못했는데, 바다를 끼고 걷는 길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좋았던 것 같다. 날이 더워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격려하고 이야기 하면서 걸으니 새로운 추억이 쌓이는 것 같았다.

일 년 동안 했던 성취포상제 활동으로 앞으로도 삶을 살아갈 때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신들을 잃지 않도록 평소에도 나를 가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신체단련, 봉사활동, 자기개발, 탐험활동을 하면서 끝까지 해내야 하는 끈기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알아서 혼자 해내야 하는 자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같이 힘쓰며 서로를 도와주고 끝까지 같이 해내는 협동심, 자기 개발을 위해 이것저것에 도전 하며 나의 꿈과 진로를 위한 공부와 활동을 하는 것 등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 포상제활동을 처음에 같이 시작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보였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여 결국 포상제 완료를 해냈다는 것에 있어 가장 크게 뿌듯함을 느꼈다.

성취포상제는 나를 성장시키는 활동이다

전주영생고등학교 **권 오 석**

고등학교 일 년 동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지만 포상제 활동은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다. 처음에 많은 활동에 참여하면 좋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취포상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막상 신청한 후 활동을 하려니 너무 어려웠다. 포상제의 규칙 중 하나는 1주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12회의 활동을 하는 것이었는데,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래도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꼈는데, 4~5회차를 하다 보니 어느새 몸에 익어 매주 수요일마다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성취포상제 활동을 하면서 총4가지 활동을 하였다. 첫 번째 활동은 플로깅이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거리에 떨어져있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플로깅을 하면서 평소 간과하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평소 내 생활습관을 반성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긴 했지만 할수록 적응이 되어서 재미있었고 뿌듯했다.

다음으로 생명과학과 관련된 실험들을 하면서 나의 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 혼자서 실험을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어서 진행하니 수월하였다. 부족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였다. 중학교에서는 하지 못해봤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새로웠다. 그 중 해부실험은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는데 있어서 생명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신체단련으로 농구를 선택하여서 활동하였다. 농구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자 내가 즐겨하는 운동이다. 농구 기술 중 배우고 싶었던 기술 중 하나인 리버스 더블 클러치를 이번 기회에 배울 수 있었다. 매끄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할 수 있었다. 슛도 부족했는데, 매 주 연습하다보니 득점률이 좋아지게 되었다. 이번 기회로 내 농구 실력을 성장시키고 친구들과 바쁜 일상 속에서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짧지만 귀중한 시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활동들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최종으로 탐험활동을 다녀왔다. 탐험활동 장소는 부안이었다. 처음에는 코스를 보고 헉 소리가 나올 정도로 걱정되었다. 하지만 막상 걸으니 기분도 상쾌하고 고단함보단 성취감과 뿌듯함이 더 컸고, 되게 오랜 시간동안 자연의 공기를 마시지 못해 답답함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산도 가고 바다도 가니 시험으로 지친 마음과 머리가 상쾌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다. 또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던 것 같다. 이번 탐험활동은 코로나로 인해 숙박이 안돼서 아쉬웠다. 다음에는 코로나가 사라지면 텐트를 치면서 취사를 꼭 하고 싶다.

일 년 동안 포상제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활동을 하고 결과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고, 또 이렇게 다 마무리 되고나니 노력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기에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은장과 금장까지 도전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금장도전!!

정읍시청소년문화체육관 **성 태 경**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친구들과 자주 가던 문화체육관에서 탁구를 치고 있는데 성은민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태경아, 포상제 한번 해볼래?, 운동 좋아하는 태경이가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중략). 선생님의 권유와 엄마의 설득으로 우연히 청소년포상제 동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정해진 순서대로 엄마의 지원을 받아 생각 없이 참여했던 것 같다. 당시 동장의 목표는 '바둑 18급 따기, 탁구 실전게임에서 5점차로 격차 줄이기, 8주간 우리 동네 봉사활동, 월령 습지 탐험활동'에 도전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도 좋지만 뭔가 목표를 세우고 하는 활동도 은근 재미있었다. 8주가 매우 짧게 지나갔던 기억이다. 동장 포상제 심사 후 포상식을 참석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상을 받으니 뭔가 보람도 있었고, 다음 은장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2019년 5학년이 되어 나는 바로 은장에 도전하였다. 2살 어린 여동생도 동장에 참여하였다. 은장의 도전 목표는 '내 고장 쓰레기 줍기 16주 봉사활동, 줄넘기로 2단 뛰기 연속 70개, 바둑 11급 따기, 섬진강 자전거 하이킹 탐험활동'이었다.

동장 보다는 긴 16주를 진행해야 되지만 매주 참여했던 활동들이 재미있었고, 봉사 활동 시간도 왠지 모를 보람이 느껴졌다. 그렇게 동생은 동장, 나는 은장을 전주시내 전라북도 청소년 축제장 무대 위에서 도내 청소년들 앞에서 정읍 대표가 된듯하여 무척 뿌듯했다.

자연스럽게 2020년 6학년 시작과 함께 금장에 도전하였다. 나의 금장 목표는 '바둑 1단 따기, 농구 플로터 기술 익히기와 봉사활동 24주, 자전거로 142km 종단'하기 였다. 그런데 2020년 2월 갑자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발생되어 전 세계적으로 생활에 제한이 있었고, 학교도 휴교하고 비대면 교육을 받을 때라 금장 활동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탐험활동은 형들과 친구들이 함께 오랜 시간 자전거타기를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다. 바둑, 농구, 봉사활동은 총 24주를 진행해야하는데 코로나로 외부 활동에 제한이 생기니 중간에 목표 수정도 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

바둑은 2018년 18급부터 긴 시간 노력 끝에 드디어 1단을 따고 자격증까지 받으니 남다른 애정이 생겼다. 신체활동으로 새롭게 시작한 농구도 재미있었고, 나의 재능을 한껏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여서 더욱 즐겁게 도전했던 것 같다. 봉사활동은 어릴 때부터 함께 했던 가족봉사단과도 같이 하는 회기도 포함하니 지루하지 않고 더 괜찮았다. 24주, 시간에 쫓기고 뭐가 엄청 많다 느껴져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좀 미뤘다가 다시 도전하니 금새 금장 도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였지만 금장까지 마무리한 내가 나 스스로 기특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 목표만 세우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긴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4년간의 포기하고 싶고, 힘들었던 탐험활동 시간들이 모두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지금 너무 행복하다.

포상제와 함께 꿈을 꾸며

진로커리어연구소 **장 필 선**

이렇게 또 한해가 마무리다 되어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뜻깊은 포상식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포상식이 진행이 되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대면 포상식으로 청소년들과 지도자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올해 국제포상제 은장 2명과 동장 1명이 진행하였는데 동장 청소년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탐험에 참여하지 못해서 포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지만 대상 청소년의 굳은 의지로 내년에 탐험에 참여해서 꼭 포상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저희 기관의 은장 청소년 2명은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자기도전 포상제 동장, 은장, 금장을 포상하고 동장을 포상 후 올해 은장을 포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 또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기 싫은 날도 있었고 지치는 날도 있었고 함께 하였던 친구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자나면서 힘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성취감이 느껴지고 포상식을 통해서 또 한번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며 아이들은 포상제와 함께 성장하며 포상제와 함께 하는 시간이 당연하다는 듯 미루지 않고 매 해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지금의 은장까지 함께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포상제를 진행해 오면서 아이들의 발전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이 증진되는 것을 지켜보고 자기개발을 통해 다양한 책을 읽으며 책에 대한 견문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아파트주변 청소를 한다며 쓰레기 줍기를 위해 휴일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작고 소소한 일이 반복되면 큰 눈덩이가 되듯이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아이들의 계획성 있는 활동들을 보면서 늘 어른인 저는 하기 힘든 활동을 아이들이 해내는구나...라는 반성도 하곤 합니다.

특히 탐험활동은 아이들이 기대반 두려움반으로 시작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완주를 끝낸 후에는 말할 수 없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기에 포상제를 도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꼭 권해주고 싶은 활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이 4가지 활동을 함께하며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성장했습니다.

은장활동을 통해 짧지 않은 시간동안 청소년들은 열심히 활동에 임해 주었고 자신의 의지로 포상을 하였고 큰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상담당관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해오며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이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아이들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봐주며 함께 달려가는 포상담당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만 앞서서 잘해야지..라고 만 생각했던 과거의 제 모습보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함께 바라보고 고민하고자 하는 저 또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포상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장만 남은 기관의 두 청소년이 힘들겠지만 금장에 도전한다면 옆에서 끝까지 함께 걸어가며 성장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꿈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세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은 장

뿌리깊은 포상제

진로커리어연구소 **김 다 정**

저는 군산진로커리어연구소에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은장을 마친 김다정 입니다.

우선,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를 동장으로 시작해 한 단계씩 도전하여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은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자기도전포상제를 시작했을 때에는 단순히 목표를 세워 그 목표에 달성하겠단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 늘면 늘수록 내 목표가 뚜렷해지고 활동을 마무리 했을 때의 성취감이 커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목표를 세우기만 하고 실행력 없이 넘어가기만 했었는데 포상제 활동을 통해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아 포상제 활동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동장을 시작했을 때에는 코로나가 이미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도전포상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매주 방문했던 '오손도손 노인복지센터'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방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매 주 뵈었던 어르신들을 뵐 수 없어서 속상하기도 했고 직접 뵐 수 없어서 안부를 전해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당장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지 않아 막막하던 찰나에 우리 집 주변의 쓰레기들을 치우며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 아파트 주변 쓰레기 줍기 활동 봉사활동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외에도 자기개발활동과 신체단련활동이 있는데 활동 기간이 너무 길었기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지루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운 목표를 끝냈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 컸기에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 했습니다.

탐험활동 또한 다음 활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 역시도 활동을 마무리 했을 때의 성취감 덕분에 탐험활동을 가는 것도 감안하고 포상제에 매년 도전 할 수 있었습니다. 3일 간 자전거를 타며 체력의 한계로 힘들었지만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성취목표에 달성하는 것은 저 자신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겁나고 두려웠지만 이겨냈고 앞으로 도전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잘 이겨 낼 자신이 생겼습니다.

포상제는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뿌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6년을 단 한해도 쉬지 않고 포상제에 도전을 해왔고 목표를 이루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느낌은 앞으로 살아갈 제 삶의 기둥과도 같은 지지대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 많았고, 나를 바꾸고 실천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매우 뿌듯했습니다. 더하여, 도움주신 담당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목표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금장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 1년이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보다 더 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청소년포상제

진로커리어연구소 **김 지 영**

안녕하세요. 이번 국제청소년 포상제 은장을 완수한 군산동산중학교 3학년 김지영입니다. 먼저 이번 활동도 무사히 끝내고 포상을 받는 친구들에게 축하하고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도전포상제 동장을 시작으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은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내가 이걸 하는 이유를 찾기 바빴는데 이제는 게임 다음 단계로 넘어가듯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 모습을 보기 위해 포상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개발부터 짧게 소개하자면 〈중학생권장도서를 읽고 견문을 넓히자〉가 이번 목표였습니다. 전 일주일에 한 번씩 중학생 권장도서를 읽고 일지쓰기를 통해 독후활동을 했습니다. 집에 오면 숙제 혹은 핸드폰이던 저에게 조금씩 책 읽는 시간이 생겼고 이 시간은 어느새 숙제가 아닌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종류의 책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중학생권장도서로 목표를 잡아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볼 수 있었고 다양한 배경지식을 쌓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일지 작성을 통해 책을 더 깊게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체활동으로는 집 주변을 걸었습니다. 시작부터 무리하면 금방 포기할 거 같아서 처음엔 가볍게 걷다가 점점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걸었습니다. 밖에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 신체활동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주변 환경에 대해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매주 아침, 장갑과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 축구장과 놀이터를 돌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쓰레기를 줍다보니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가 지구를 덮고 있다니 과거 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학교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줍고 쓰레기를 아무렇게 버리는 것이 마음이 무겁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주변을 깨끗하게 한 것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을 얻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험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 탐험활동을 갈 때 마냥 신나지는 않았습니다. 낮은 체력과 쉽게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 때문에 저번 활동이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탐험활동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번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앞에 친구들 따라가기 바빠 무작정 페달만 밟던 과거 나와 다르게 예쁜 갈대밭을 감상하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만약 내가 탐험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살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오래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날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운동을 싫어하는 저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했고 포상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완성시켜주었습니다.

제 활동의 목표는 그리 거창하고 참신한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모두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거나 어쩌면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활동에 나만의 목표와 내 발전을 위한 마음을 담으면 의미있는 활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상제 활동을 마친 후 뿌듯함, 후련함, 감격스러움 등의 여러 감정이 섞인 마음을 직접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나중에 내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거나 추억으로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조 정 아**

지난해 1월 두 자녀의 청소년성취포상제 입회를 희망하는 학부모와의 전화상담 끝에 약속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몇 분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본 기억이 납니다.

잠시나마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고 느꼈던 순간 같았다고 할까요? 희연이가 2020년 1월 청소년포상제에 입회하고, 2021년 11월 활동 종료까지 흥덕청소년문화의집에 굴러온 호박넝쿨은 마치 정글과 같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맞아요?'하고 질문하는 학교의 수업과는 달리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도전한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껴, 청소년문화의집에 입사하기 무섭게 고창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성취포상제를 시작했지만, 3년 동안 입회 청소년 대비, 단 1명도 포상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사례만 남길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시기에 희연어머님의 입회 신청은 포상담당관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희연이는 오프라인으로 은장에 지원했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활동을 하는데 굳이 오프라인으로 기록을 하겠다 자신한 친구였습니다. 포상제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엄마의 뜻으로 시작한 듯 보였지만, 이미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준비하는 청소년임에는 분명했습니다.

희연이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가능한 친구로 꾸준히 외국어 공부를 하며 시험에 도전하고, 그 재능으로 번역이나 문화봉사 활동을 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포상제 활동을 하면서 희연이가 정한 목표를 향해 규칙적으로, 기록을 남기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추가하고, 큰 변화 없이 활동하도록 목표설정 하면, 은장을 배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포상제의 클라이막스같은 탐험활동이 진행되면서, 문화의집과 체육청소년사업소 청소년팀은 희연이의 자전거타는 실력으로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다음 주에 탐험활동인데, 자전거를 전혀 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특강을 하고, 매일 밤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들도록 연습을 한다는 희연어머니의 말씀처럼 점점 중심을 잡고, 공원을 돌기 시작한 희연이는 성공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자전거길 종주를 성공하였습니다. 가장 늦게 들어 왔지만 자전거에서 끝까지 발을 떼지 않고 들어오는 그날의 희연이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희연이의 포상제 은장 활동은 2021년 상반기에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을 선택했고, 타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희연이에겐 포상제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은 큰 숙제였을 것입니다. 활동일지와 보고서 등에서 수시로 반려를 접했고,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이나, 몸이 아파서 고창에 오는 기간에만 다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활동을 마쳤습니다.

포상담당관으로서의 저는 한 번은 했으리라 믿어주고, 한번은 정말 했지?라고 물어보고, 한 번은 그래 해보자!라고 응원하고, 수고했다 박수치는 역할뿐이었습니다. 희연이는 이미 스스로 도전하면서 성장할 줄 아는 멋진 청소년이었습니다.

고창군 국제청소년성취포상 제1호 은장 안희연의 도전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장으로 돌아오겠다는 희연이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금장에 도전해볼까?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안 희 연**

처음 청소년포상제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일까 하고 의구심이 들었다. 설명을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쉬워 보여서 손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주 마다 주어진 과제를 시행하고 기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 탐험활동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도 오래 걸렸다. 특히 봉사 활동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지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지 않아서 타 지역에 가서 하는 활동이 많았다. 주로 나의 자기개발인 영어와 관련된 봉사 활동을 하거나 청소년참여위원활동과 원탁활동을 할 수 있었다.

신체단련은 걷기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했다. 밤에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주변 공원을 돌면서 활동을 했다. 초반에는 별 차이가 없어 지만 시간이 거듭날수록 전보다 빨라지고 시간도 늘게 되어서 만족감과 성취감이 들었다.

자기개발로는 원서 읽기, 단어 외우기 등 외국어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내가 목표로 한 여러 영어 테스트에서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활동으로 목표했던 성과도 이룰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나의 진로 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어 학업 진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탐험 활동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다. 은장은 2박3일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여행을 했다. 다리가 터질 것 같았고 끝내지 못할 것 같았지만 결국 완주를 할 수 있었다.

포상제에서 힘들었던 점은 역시 꾸준함이다.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점점 귀찮아지면서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앞으로 달려 나가다 보면 언제 가는 끝에 다다르는 법이었다.

반대로 제일 즐거웠던 점은 의외로 봉사활동이었다. 봉사라는 건 하나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이를 통해 외국인들과 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무척이나 즐거웠다.

그리고 포상제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탐험활동 때인데 원래부터 체력이 약해서 2일차 끝나고 보니 근육통으로 온몸이 아팠었다. 신체활동으로 그나마 체력을 기르긴 했지만 몇 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과는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몇 개월 동안 해온 게 물거품이 되는 것이 싫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결국 완주를 성공했다.

이렇게 포상제를 마치고 나니 체력이 많이 상승되어서 몇 개월 간 진병 치례로 병원을 가본 적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주마다 꾸준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다른 공부들도 꾸준히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해야 하는 일과를 까먹어서 애를 먹던 날과 달리 이제는 기록을 하여 꼬박꼬박 필요한 일을 마치면 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보다도 특히 영어 실력이 많이 상승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년에는 모두가 힘든 저 또한 너무 힘들었던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다시 한 번 더 많은 꿈과 미래를 위해 금장으로 꼭 도전하고 싶다.

전라북도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1 청소년활동 사례집 (비상기자단, 청소년포상제)

인　　쇄 2021년 12월
발　　생 2021년 12월
발 행 처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5499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2층)
전화 063.232.0479 / 전송 063.287.0479
홈페이지 www.jb0479.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jb0479
블 로 그 blog.naver.com/youth0479
발 행 인 김의숙

발간관리번호 2021-003

| 전라북도 |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활동진흥센터

5499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 2층
TEL 063-232-0479 FAX 063-287-0479 www.jb0479.or.kr